

별을 찾는 아이

13조 화학교육과 2021-17637 양지원

머리말

머리말에는 경어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 경어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책의 저자로,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21학번 양지원입니다.

수강변경기간에 제 친구들과 함께 본 수업을 수강하기로 하고 9월 6일 수업부터 수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학점을 소위 뿌린다는 교수님의 수업도, 과제가 적은 수업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 관심사와 흥미에 들어맞는 수업을 사냥하러 다녀요. 때문에 부끄럽게도 학점이 막 높은 편이 아니지만, 혹시나 만나게 된 교양 수업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 학기마다 늘 설레는 것 같습니다. 본 수업을 선택했던 이유도 컴퓨터과학이라는, 비전공자들에게는 꽤나 어렵게 느껴지는 생소한 분야를 교수님과 교수님의 출판물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 때문이었고, 종강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살펴보면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위해 넘어서야 하는 일이 많지만, 본 수업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만의 책을 출판하고, 용어를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나만의 튜링기계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과 조교님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더라도 항상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고들려 하는 학우님들과 그러한 질문들을 즐겁게 답해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올 한해 저와 같은 팀이 되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머리말을 빌려 하게 되네요. 저도, 여러분도, 조교님도, 그리고 교수님도 정말한 학기, 그리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면, 본 책은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르침처럼 가혹한 가르쳐짐은 없다.' '시나리오 작성' '시사냥' 글로써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지라 챕터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글 투성이입니다. 흰 배경에 검정 글씨만 난무해서 읽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투박한 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학문의 대중화라는 것.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짧은 식견에 비추어보면, 컴퓨터과학은 앞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초 학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여타 학문들과 동일하게 컴퓨터과학이 그동안 각종 자격증, 그리고 대학에서 마주하는 교양 과목 정도의 역할로써만 비춰져 그 본질과는 너무나도 다른 왜곡된 인식이 퍼져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기피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궁극의 지적 유희를 추구하는 모습, 그 어떤 오락 수단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끝없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이 컴퓨터과학의 참 모습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학문에 대한 인식이 본연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저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에게 주어진 과제로서의 의미로만 이를 바라보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책을 썼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1년 12월 12일, 방금 집필이 끝난 양지원 올림.

목차

0. 머리말(3p)

1. 가르침처럼 가혹한 가르쳐짐은 없다(5p)

2. 시나리오 작성(19p)

3. 시 사냥(75p)

4. 끝맺음(86p)

1. 가르침처럼 가혹한 가르쳐짐은 없다.

강의에서 배운 하나의 토픽을 정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베프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준다면,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 친구도 컴퓨터과학이라는 분야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배운 토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친구와 함께 3일에 걸쳐 다음 주제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첫째날 :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

- 배경 : 당대 수학계의 바람
- 수학계의 커다란 문제
- 그것에 대한 괴델의 답과 증명

둘째날 :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그것에 대한 튜링의 증명

- 튜링머신의 정의
- 튜링머신의 자연수 표현과 멈춤문제
- 튜링의 증명

셋째날 : 무한에 대한 고찰과 멈춤 문제(halting problem)에 대한 상상

- 기계는 무한을 상상할 수 없는걸까?
- 정녕 기계는 먼 미래에도 홀팅문제를 풀 수 없는걸까?
-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도전과 결과

참고로 본 챕터 1에 등장하는 수정이는 제 실제 친구로, 작년에 제가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재학 당시 과 동기입니다. 이 친구도 이걸 읽었고, Epilogue에 실제 친구와의 대화가 각색되어 나옵니다.

Prologue (전시회장에서)

지원 : 참 이 그림은 언제 봐도 멋있지 않아?

수정 : 맞아.

지원 :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1889년에 그렸어. 하지만 그가 그린 이 작품 속 별들은 122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 천 년 뒤 먼 훗날에도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유한한 삶을 산 그가 무한한 예술을 담은 작품을 그렸다는 게 참 놀라워.

수정 : 맞아. 예술가들 참 대단하지 않아? 노래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예술작품을 그리고, 만들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감동 시키잖아.

지원 : 인공지능도 요새 그렇다던데? 5년 전이었나 예술의 영역은 아니지만, 인간과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기도 했잖아.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많은 걸 가능하게 할 거야.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게 무한해질 거라고들 하고.

수정 :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뛰어넘어 무한해질 수 있을까?

지원 : 아. 진짜 별 보러 가고 싶다. 난 이번 학기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하늘 볼 시간 없이 계속 집에만 박혀 있었던 것 같아. 나랑 별 보러 갈래?

수정 : 12월 20일에 발표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지원 : 응. 그거 끝나면 바로 놀러가자. 20일부터 3일간 괜찮아?

수정 : 좋아. 어디로 갈지는 정한거야? 너 원래 이런 거 못 정하잖아.

지원 : 이왕이면 별 보러 갈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

수정 : 내가 휴학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장소는 한 번 알아볼게.

1일

수정 : 이야, 내가 찾은 장소지만 자연에서 보는 밤하늘은 진짜 맑

구나. 난 우리 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파트 조명 때문에 그런지, 별을 본 경험이 많지 못했던 것 같아. 여행 오기를 정말 잘 한 것 같아.

지원 : 그러게. 도시와는 정말 먼 곳이라 그런지, 별을 이렇게나 많이 본 건 진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별을 다 세 보려고 해도 못 셀 것 같아. 꼭 무한히 많을 것 같아.

수정 : 난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

지원 :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넓히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잖아. 마치 컴퓨터처럼 말이야.

수정 : 컴퓨터? 갑자기 컴퓨터가 나오는 건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지원 :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아?

수정 :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보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 애니약 아니었던가? 예능에서도 단골처럼 나오는 문제잖아.

지원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대답은 틀렸어. 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건 아니니까. 사실 말이야 컴퓨터는 수학자들이 만들었거든.

수정 : 뭐라고? 수학자들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지원 : 맞아. 컴퓨터는 20세기 수학자들이 가졌던 큰 꿈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 불과해. 좌절을 엄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소품 같은 거지. 그 중심엔 튜링이 있었고.

수정 : 그게 무슨 말이야?

지원 : 1928년, 유럽 수학계에는 대담한 꿈이 번지고 있었어. 당대 수학계를 이끌어나가던 다비트 힐베르트가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수정 : 어떤 생각?

지원 : 사실 생각해봐. 네가 컴퓨터를 수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안 믿었던 이유가 뭘까? 너와 비슷한 생각을 힐베르트도 한거야. 수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작업과정들은, 몇 개의 생각 법칙, 우린 이것 앞으로 추론 규칙이라고 부를거야. 그 추론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게 다인 듯 보인거야. 물론 내용은 너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잡한 것이겠지만, 과정은 그게 다니까. 힐베르트가 한 생각이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정해진 몇 개의 추론 규칙만 가진다면 앞으로 나를 포함한 수학자들이 증명할 명제들을 모두 술술 찾을 수 있는게 아닐까?' 했던 거지.

수정 : 혹시 '추론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지원 : 너 설록흠즈란 드라마 되게 자주 봤다고 했지?

수정 : 응. 근데 그게 왜?

지원 : 설록흠즈 역시 수많은 사건 과정에서 해왔던 게 바로 그거니까. 잘 봐. 설록 흠즈 앞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과정은 결국 'A이면 반드시 B야. 그리고 내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은 A야. 그렇다면 B겠네' "A가 사실이면 지금 상황이 펼쳐질 순 없어. 그러니 A는 아니야." 같은 것들 아냐?

수정 : 근데 사건들이 다 다르잖아.

지원 : 맞아. 그 다른 사건들, 구체적인 경우들에 'A'와 'B'만 같아 끼운다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수정 : 아하~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도 수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한 명제들이 정말 많지 않아?

지원 : 맞아. 그렇다면 이 생각은 성공했을까?

수정 : 아니니까 그들도 해결못한 난제들이 있는 거겠지?

지원 : 맞아.

수정 : 그럼 힐베르트가 증명해낸거야?

지원 : 그건 아니야. 3년 뒤인 1931년에 쿠르트 괴델이라는 25세의

뉴비 수학자가 나타나서 증명했거든.

수정 : 우와...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증명해낸거야?

지원 : 그가 내세운 것은 바로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야. 기계적인 방식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명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지.

수정 : 기계적인 방식? 기계적인 방식이라. 감은 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지원 : '기계적'이라는 것은 '기계와 같이 행하는 것'이잖아. 예를 들면, 공장에 존재하는 기계들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어진 재료를 적절한 개수와 알맞은 위치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사람이 기계적인 작업을 행한다는 것은 일례로 '단순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 혹은 '숫자 계산을 보편적인 방법대로 반복하는 것' 등의 작업이 있지. 이처럼 기계는 정해진 루틴에 근거하여 감정과 판단을 가지지 않은 채로, 입력값(input)을 넣으면 출력값(output)을 산출한다. 즉, 그 루틴을 실행하는 주체인 기계가 창의성과 자주성이 없는 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결국 이미 학습되어 있는 익숙한 패턴을 사용하기에는 최적인거지.

수정 : 수학에서 사용한 '기계적인 방식'도 이것과 비슷한 거겠네?

지원 : 그렇지. 그들은 '기계적'인 방식을 '속뜻을 일일이 사고를 거치지 않고 마주하지 않아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어. 몇 가지 기본적인 논리추론규칙들에 입각한다면 그 문장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의 참 거짓을 알맞게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지. 결국 처참히 깨지긴 했지만, 정리해보면 '기계적'이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원인과 결과가 수미일관하게 연결되어 어떠한 필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마치 하나의 공장의 제품 만들 듯이 A-B-C가 연결되는 과정이 딱 들어맞게 간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

수정 : 기계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불완전성 정리는 정확히 뭔데?

지원 : 나도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내 수준에선 너한테 알려줄 정도로 이해하긴 힘들더라.

수정 : 아, 그래? 아쉽네.

지원 : 그렇다고 힐베르트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못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야.

수정 : 오, 그래? 혹시 다른 사람이 증명해 낸 거야?

지원 : 역시. 눈치 하나는 빠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낼 때에도 몇 백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 역시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증명된 것은 아니야.

수정 : 누가 한거야?

지원 : 바로 컴퓨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씨를 뿌린 사람, 앨런 튜링이야.

수정 : 앨런 튜링? 나 작년에 비문학 지문에서 본 것 같아.

지원 : 맞아. 너와 내가 낯이 익은 사람이긴 하지.

수정 : 앨런 튜링, 그 사람은 어떻게 증명했는데?

지원 : 우리 근데, 자연 앞에서 이런 학문적인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수정 : 글썄.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들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 아냐?

지원 : (웃으며) 정말 말로는 널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난 그만 얘기할래. 한 번에 다 털어놓으면 재미없잖아.

수정 : 그래. 오늘은 저기 숲속 산책이나 가자.

2일

수정 : 어제 하던 이야기나 이어서 해줘.

지원 : 와. 아직도 궁금해?

수정 : 응! 앨런 튜링이 그래서 어떻게 증명해낸 건데?

지원 : 앨런 튜링도 별로 나이가 많지 않았어. 20대 초반? 우리랑 거의 비슷한 나이지. 그가 193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를 졸업한 뒤 강의를 듣게 됐어. 38세의 수학과 맥스 뉴먼 교수님이 개설한 강의 말이야.

수정 : 그 강의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건가?

지원 : 맞아. 거기서 튜링은 괴델의 증명 소식을 들어. 강의 내용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을 리뷰한 거거든.

수정 : 와. 우리가 감히 이해 못할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을 다시 보고 뭔가 떠오른거구나.

지원 : 정확해. 튜링은 이 강의를 듣고 괴델의 증명을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증명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렇게 상이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증명을 정리하지. 1936년 논문 <계산가능한 수에 대해서, 수리명제 자동생성 문제에 응용하면서>에서 말야.

수정 : 어? 어제 튜링 이름을 컴퓨터 얘기하면서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지원 : 진짜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네. 맞아.

수정 : 그렇다면 컴퓨터가 이 논문에서 탄생한 건가?

지원 : 아냐. 논문 제목을 봐. 그 어디에도 '컴퓨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 뭔 놈의 수리 명제, 자동 생성, 계산가능한 수 같은 수학적 용어들뿐이지.

수정 : 아, 이제 이해갔어. 애초에 튜링이 이 논문을 적은 게 컴퓨터의 설계도를 위함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네가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했고.

지원 : 하나를 알려주면 둘 정도는 깨닫는구나. 맞아. 튜링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려고 했을 뿐이야. 다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기계가 나중에 컴퓨터의 기반이 되어버린 것 뿐이지.

수정 : 그 기계 이름 왠지 튜링 기계일 것 같아.

지원 : 그치 (웃으며) 원래 자기가 만든 건 자기 이름을 따곤 하나
까.

수정 : 그러면 튜링은 튜링 기계로 어떻게 증명한 거야?

지원 : 괴델은 어떻게 증명했다고 했지?

수정 : 기계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원 : 맞아. 만약 그들이 정의한 '기계적인 방식'이 모든 사실을 만
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증명은 완성이야. 이
게 튜링이 썼던 방법이야.

수정 : 응? 여기까진 나도 생각해 낼 것 같은데.

지원 : 그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글썬? 튜링은 먼저 5개의
아주 간단한 기계 부품을 정의해. '기계적인 방식'이 오직 그 5개의
부품들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거야. 튜링은 이 5개의
부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괴델의 증명을 자신
만의 방식으로 증명해.

수정 : 5가지 부품?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단
하지 않아? 5가지 부품이 뭔데?

지원 : 무한히 많은 칸을 가진 테이프, 테이프에 기록되는 유한 개
의 심벌을, 테이프에 기록된 심벌을 읽거나 쓰는 장치, 그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심벌들, 그리고 기계의 작동 규칙표. 이렇게 5개야.

수정 : 흠..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난 이게 아직 컴
퓨터의 시초가 될만한 건지 납득하지 못했거든.

지원 : (웃으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내 설명을 다
들고 나면 기상청에서 사용하곤 하는 슈퍼컴퓨터와 별 다를 바 없
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다만 슈퍼컴퓨터가 1초만에 해내는 걸 우
리가 죽기 전까지도 못 할 수도 있지만.

수정 : 그래?

지원 : 이 기계가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해. 이 작동규칙표를 한 번 볼래?

현 상태	읽은 심벌	쓸 심벌	다음 칸	다음 상태
S(start)	*	*	>	A
A	.	\$	>	B
B	.	.	>	B
B	*	*	>	C
C	.	.	>	C
C	-	.	>	D
D	-	.	<	E
E	.	.	<	E
E	*	*	<	F
F	.	.	<	F
F	\$	\$	>	A
A	*	*	<	G
G	\$.	<	G
G	*	*		

수정 : 엷? 이게 뭐야?

지원 : 내가 이번 학기에 만들어 본 튜링기계야. 사실 난 컴퓨터의 코딩이라거나, 특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수정 : 흠. 일단 작동규칙표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원 : 맨 첫 줄 볼래? 첫 줄의 규칙이 주문하는 일은 "현재 상태가 S이고 테이프에서 읽은 심벌이 *이면 읽은 곳에 *를 덮어 쓰고, 읽고 쓰는 장치를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고(>), 다음 상태는 A가 된다는 거야.

수정 : 아. 정말 간단하네. 난 아직도 이게 컴퓨터의 시초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지원아.

지원 : 그러면 내가 만든 이 튜링기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맞춰볼래?

수정 : 그래. (30분이 지난 후) 이거 갈수록 *의 개수가 2배씩 늘어나는데.

지원 : 이야. 이걸 알아냈네. 어때? 감이 왔어?

수정 :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원 : 30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결국 지금의 어떤 컴퓨터가 하는 일도 튜링 기계는 다 해놓을 수 있어. 보면 알겠지만, 기계의 정해진 테이프와 심벌들만 있다면 임의의 튜링기계를 1차원 실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임의로 다른 기계의 정의를 테이프에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 또, 테이프에 표현된 기계의 정의에 따라 그 동작을 그대로 흉내 낼 수 있도록 작동규칙표를 정의했다는 점이 있지. 그래서 자기의 고정된 작동규칙표를 따르면 테이프에 기록된 임의의 기계를 그대로 흉내 낼 수 있게 돼. 이 정도면 보편 만능의 기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아?

수정 : 그럼 너 말은 어떤 계산이건 그에 해당하는 기계를 테이프에 입력으로 받아서 그 작동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거야?

지원 : 정확해.

수정 :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예시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지원 : 세 개의 테이프를 하나에 합치는 거, 정말 간단한데? 각 테이프의 칸들을 번갈아 한 테이프에서 깎지 꺼서 표현하면 돼. 각 테이프에서 따로 읽고 쓰던 걸, 하나로 합쳐진 테이프에서는 일정 보폭으로 건너뛰면서 읽고 쓰면 되지. 각 테이프마다 달랐던 읽는 위치는 합쳐진 테이프에서 칸 옆에 표시해 놓으면 되고. 그 표시를 위해서 칸마다 둘로 나눠서 왼쪽 칸을 해당 테이프의 위치 심벌을 써 넣는 장소로 사용하면 돼.

수정 : 튜링 기계. 와닿긴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튜링이 이 기계를 사용해서 불완전성을 증명한거야?

지원 : 사실 말야. 나 배고파. 밥 먹고 얘기하자.

수정 : (시계를 보고)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래.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3일

수정 : 어제 밥 먹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우리 너무 피곤하긴 했나 봐.

지원 : 맞아. 꿀아떨어졌어.

수정 : 튜링이 불완전성을 증명한 과정을 3일에 걸쳐서 얘기하다니. 여행을 온 건지 세미나에 온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오기가 생겨서 궁금하다.

지원 : 알겠어. 한 번 물어볼게. 어떻게 증명했을 것 같아?

수정 : 흠...결국 목적은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튜링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 아니야?

지원 : 맞아. 튜링은 그러한 튜링 기계 A가 없다는 걸 귀납법으로 증명해. 만일 A가 존재한다면 다른 튜링 기계를 입력받아서 그 기계가 멈출지 안 멈출지 알아낼 수 있는 튜링 기계 H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만약 A가 존재한다면 H가 존재할거야'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H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사실로 'A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지.

수정 : H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이는데?

지원 : 튜링은 멈춤 문제(halting problem)라는 걸 사용해. 튜링 기계는 자연수의 개수만큼 있거든. 그런데 멈춤 문제를 정확히 풀어주는 튜링기계 H가 있다고 하면, 그 H를 이용해서 튜링기계의 개수가 자연수보다 많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이건 모순이잖아. 따라서 멈춤 문제를 푸는 튜링기계는 존재할 수 없어.

수정 : H가 존재하면 어떻게 자연수보다 많은 튜링기계가 가능한데?

지원 :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칸토어야. 칸토어가 자연수의 개수보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을 보일 때 사용한 방

법인데, 바로 대각선 논법(diagonalization)이지.

수정 : 어떻게 썼을지 궁금한데?

지원 : 튜링기계의 개수는 자연수 개수를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튜링기계마다 자연수로 번호를 붙이면 모두 붙일 수 있겠지. 튜링 기계의 테이프에 올라온 입력도 그렇고.

수정 : 그치. 어차피 테이블 심벌로 유한개고 길이 역시 유한개일테니까 자연수의 개수보다는 많을 수 없지.

지원 : 맞아. 그렇다면 모든 튜링기계마다 모든 입력에 대해서 H의 결과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채워 넣을 수 있지. 세로축에는 자연수의 개수만큼인 모든 튜링기계가 나열해 있고, 가로축에는 자연수 개수만큼인 모든 입력이 도열해 있지. 각 칸에 해당하는 튜링기계와 입력을 H에게 줘서 멈춤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지. 끝난다면 1, 아니라면 0을 써놓도록. H는 모든 튜링기계에 대해서 그런 답을 정확히 낼 수 있다고 했으니, H를 이용해서 그렇게 테이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해되지?

수정 : 응. 근데 이게 대각선 논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거야?

지원 : 이제 이 테이블을 대각선으로 참조하면서 모든 튜링기계와 다른 튜링기계를 만들 수 있어. 이 새로운 기계는 입력에 대해서 테이블을 보고, 튜링기계행에 뭐가 쓰여있는지 봐. 0이면 1을 내놓고 끝나도록 하고, 1이면 입력을 튜링기계에 넣고 돌려서 나온 결과에 1을 더해서 내놓고.

수정 : 아, 이렇게 만든 기계도 튜링기계겠구나. 하는 일이라는 게, 다른 튜링기계를 흉내 내고 그에 덧붙여서 기껏 +1을 하는 기계니까. 아! 그렇다면 이 튜링기계는 모든 튜링기계와 다르구나. 그래서 모순이고.

지원 : 맞아. 그래서 H가 있으면 안 되는거야.

수정 : 와. 이걸 20대의 젊은 청년이 알아냈다고? 대단한데? 이제 어렵פות이 컴퓨터의 시초가 이 튜링기계라는 게 조금 이해될 것 같

아.

지원 : 그렇다면 기계는 무한에 다가설 수 없는걸까? 혹시 3일 전에 전시회장에서 네가 했던 질문 기억 나?

수정 : 인공지능이 무한할 수는 없는건지?

지원 : 맞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너만의 대답을 줄 수 있겠어?

수정 : 글썄. 모르겠어. 사실 난 오늘을 비롯해서 이 3일간 너에게 컴퓨터의 시초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내가 감히 이 광활한 세계에 대해 단언할 수 있을지.

지원 : 그래도 난 너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

수정 : 흠. 난 인공지능이 인간이 입력한 수식과 데이터 안에서만 대단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AI는 유한한 정보만을 베이스로 삼잖아. 그래서 무한에 다가서진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르다고 봐.

지원 : 어떤 면에서?

수정 : 인공지능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 아냐? 무한의 개념으로 집합론을 창시해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눈부신 수학의 발전을 이루었던 칸토어처럼 우리는 분명 무한하게 꿈을 꿀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거야.

Epilogue

지원 : 정말 뿌듯한데? 사실 내가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정말 수월하게 이해를 해줘서 설명이 원활했던 것 같아. 참 섬세한 너의 질문들과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들어온 가혹한 너의 질문세례들이 힘들긴 했지만, 재밌더라. 결국 너가 가졌던 너의 의문에 너만의 답을 낼 수 있게 된 것도 멋지고.

수정 : 내가 워낙 궁금한 걸 못 참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끝없이 파고, 질문하고,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바람

에 혼나기도 했고.

지원 : 나도 사실 이번에 수강했던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 알다시피 기계치에, 기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고. 컴퓨터 코딩을 배우던 고등학교 정보 과목에서도 무작정 암기만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만 급급했지.

수정 : 그나저나 조금 아쉽네. 네가 모르는 부분, 대답 못하는 부분까지 무언가 꼭 짚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맥없이 '아-하'를 외친 것 같아서. 조금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원 : 나도 어렸을 때 정말 무한히 상상하는 걸 즐겼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의 풀이과정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데서 내 공부가 그쳤던 것 같아.

수정 : 그건 나도 그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풀이를 따라하는 것이 무엇보다 빠른 길이니깐.

지원 : 난 교육과에 속해 있잖아. 튜링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스승의 영향이 컸다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그와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무한히 펼쳐, 이 시대의 또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수정 :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난 벌써 느꼈는데? 과학이라면 꿈 짝이도 싫어했던 나에게 400년의 컴퓨터과학 역사를 알려줬잖아. 비록 괴델까지는 네가 아직 섭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웃음)

지원 :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걸. 오늘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

2. 시나리오 기획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수강하면서 읽었던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이광근 저)' 및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많은 참고문헌들에서 영감을 받아 본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를 상상해보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집필해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도 했고 워낙 좋아하는 활동이라, 강의를 통해 읽고 들은 것들이 정족매가 되어 독자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과연 필자인 제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은 각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가 많다. 더욱이 ‘더 좋은’ 영화가 있음에도 기획자(13조)가 아직 발견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어지고 더욱 멋진 상상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 속 장면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으며,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이 꼭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이다.”

- 조별 토론 내용 중

※ 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회사명 등은 전부 가상의 이야기이며 현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현' '신영'의 이름은 저와 본 수업을 같이 수강했던 친구들에게 허락을 받고 차용하였습니다.

1장

- 힘겨운 날에 너마저 없다면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기간에 우리보다 더 영리해지고 많은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듯 그들 또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뉘질 텐데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시작을 보여준다. 가벼운 육아 체험기처럼 보이겠지만, 이어질 내용의 초석이 되는 인물들, 그리고 복선들이 깔려있다. 집중하자. 곳곳에 숨겨있는 함정들에.

1

그 물체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다. 신영은 손끝으로 뺨을 만져본다.

신영 : (무의식적으로 작게 감탄하며) 와아, 굉장하다. 영락없이 마시멜로 같아. 이거, 정말로 인공피부예요?

박사 : 네, 저희 회사의 최신 기술이 거둔 성과입니다. 타사 제품에는 이만한 질감을 가진 상품은 결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 나선 남자 박사는 자랑스럽게 코를 별름거리며 말했다. 신영은 새삼 케이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누워 있는 것은 제품명 <휴머노이드 베이비 046-146C>, 통칭 아기 로봇이다. 지금은 하얀 옷을 입고 눈을 감고 있었다.

성재 : (담당 박사를 바라보며) 현재 상태는 어때요?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동 가능한 상태입니까?

박사 :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품 속에서 가늘고 긴 리본을

꺼내며 아기 로봇의 코 끝에 날린다.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며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성재에게 웃음을 지어보인다.)

성재 : 자는 건가? 어떻게 하면 잠이 깨죠?

박사 : 실제 아기와 똑같아요. 큰 소리를 내거나 세계 흔들면 눈을 뜹니다.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지요.

신영 : 와아, 잠깐 안아 봐도 돼요?

박사 : 물론이죠, 두 분 아기인데요.

신영 : 아하하, 그러네요. (작은 로봇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품에 안으며) 아, 꽤 무겁네요.

박사 : (휴대 단말기에 시선을 떨구며) 무게는 8.5킬로그램. 생후 10개월 정도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건 고객님의 유전자 정보에서 산출해낸 수치입니다.

신영 : (아가에게 말을 건네며) 잘 부탁한다, 아가야

아기 로봇은 살짝 눈을 뜨고 귀여운 웃음을 짓는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되면서, 화면이 전환된다.

신영 : 얼마 전에 여름이라고 장기휴가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보낼지 정하지 않아서 정말 고민했어. (지난 신영의 휴가장면을 보여주면서) 해외여행은 이제 실증이 났고 고향 부모님과는 영상통화로 늘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굳이 귀성길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레저를 즐기려도 해도 어차피 어디에 가든 인파가 넘쳐나서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았어.

신영 : (친구들에게) 너넨 휴가 어떻게 보낼거야?

서현(친구1) : 이번엔 평소에 못 해봤던 거 해보게. 뭐 할진 구체적

으로 안 정했지만, 언어 공부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스포츠 종목 하나만 배워보게.

신영 :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하... 이런 거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하고 싶은 건 이미 다 손 댄데...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다시 신영의 독백으로 돌아오고, 신영의 귀갓길을 보여준다.

신영 : 그런 참에 눈에 들어온 것이 유사 육아체험 광고였어. 로봇 아기를 사용해 실제로 키워보면서 육아 과정이 어떤 것인지 몸소 알아본다는 거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다고 감탄했지.

예전에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만혼이 문제였지만 요즘은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부쩍 증가한 거고,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나와. 남자와 교제하는 일은 있어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 거기서 뭔가 메리트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 쪽도 똑같은 생각인지, 지금까지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결혼하자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를테면 성재 씨는 한심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신사적이고 대화에도 능숙해. 연인으로서의 나무랄 데가 없어. 그래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만일 결혼에서 의의를 찾는다면, 나에겐 아이였어.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 둘 다 있는 것이 좋아. 하지만 내가 아이를 원하는지 어떤지 잘 알 수 없었어. 평생 한 명쯤은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어. 하지만 아이를 둔 친구들을 보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아이가 생긴 다음에야 역시 그만둘 걸 그랬다고 후회해봤자 이미 때늦은 일이지.

나처럼 그런 식으로 아이를 가질지 말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분명 적지 않을 거야. 역시 정확한 포인트를 뚫고 들어간 비즈니스야. 그 비즈니스에 넘어가 즉시 신청해서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아기 로봇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

현재로 화면이 전환된다.

신영 :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으며) 이름부터 지을까? 애는 여자애니까... (성재와 같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고민한다. 그러다 무언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고개를 들며) '진주'라 하자. 진주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하잖아.

성재 : (신영의 말에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진주. 아주 좋아.

그 순간 진주가 칭얼거리기 시작한다.

신영 : 왜 그러지? 기저귀가 불편한가? (아기의 기저귀를 살펴보며) 조금 축축한 것 같네. 오늘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지. 기저귀도 사두고, 이미 헬스장도 다녀왔고, 옆집에서 아기 침대랑 유모차도 빌리고~ (아기를 들며) 진주야, 다리 좀 버둥거리지 마. 성재 씨, 왜 멍하니 서 있어? 다리 좀 잡아줘.

성재 : (신영 옆에 서서 진주의 다리를 두 손으로 잡으며) 이렇게?

신영 : 응. 이거 은근 손이 많이 가는 일이네.

신영이 기저귀를 엉덩이 밑에 넣었을 때였다. 아기의 엉덩이에서 뭔가 분출해 신영의 얼굴을 덮쳤다. 아차 하면 눈에 들어갈 뻔했다.

신영 :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우앗! (손등을 바라보며) 뭐야, 이

거? 똥이잖아.

성재 : (시들한 목소리로) 그런 것 같아.

신영 : 크옥, 냄새 지독해. 대체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성재 : 젖먹이 아기잖아. 원래 아기들은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똥을 싸는 거야.

신영 : 근데 이건 로봇이잖아. 진짜 똥을 싸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성재 : 그건 안 되지.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필요해. 게다가 이건 진짜 똥이 아니야. 냄새와 색깔을 비슷하게 맞춘 것뿐이지. 아무리 그래도...(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 시끄러워! 제발 잠깐 기다려. (욕실로 향한다.)

2

침실에서 진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래도 잠이 깬 모양이다.

신영 : 하...(손이 비지 않은 채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곧 성재씨 오는데...(중얼거리며) 잠시만 기다려라...

진주를 데려오는 것과 동시에 성재 씨와의 동거생활도 시작되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설정이라서 결혼한 게 아니고서는 이상한 것이다.

어찌됐든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다. 울음소리라기보다 악을 쓰는 소리였다. 신영은 결국 고개를 내젓고 조리기의 스위치를 껐다. 찌개가 꽤 맛있게 끓기 시작한 찰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살균 보온기에 병째 넣어둔 합성 분유를 빼 들고 침실로 향했다.

진주는 계속 울어댄다. 신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뭔가를 호소하려는 듯했다.

신영 : (진주를 품에 안고 그 작은 입에 분유병을 대주며) 그래. 맘마 먹자.

진주는 입에 물려고 하지도 않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울기만 할 뿐이었다. 분유병을 내려놓고 아기의 아랫도리에 얼굴을 들이댔다. 역시 그거였다. 아기 침대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로 한 신영은 한숨을 크게 내뿜는다.

신영 : 하아, 말도 안 돼.

더러워진 기저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갑자기 진주가 격하게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여기저기 변이 튀어서 신영의 옷이며 카펫을 더럽혔다. 신영은 절망적인 기분을 느꼈고, 마침 잠시 뒤 성재 씨가 돌아왔다.

신영 : (요리를 다시 시작하며) 어떻게 된 거냐면...

성재 :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네. 뭘 일인지 알 것 같아.

신영 : 그나마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한 거야.

성재 : 수고했어.

신영 : (요란한 한숨을 내쉬고 아기 로봇으로 시선을 던지며) 야전히 자고 있으면 정말 귀여운데.

성재 : 내 자식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

신영 :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내 자식이라면 울어도 똥을 싸도 귀여울 거야. 역시 로봇은 실제와는 다른가 봐.

신영이 절절히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진주의 얼굴이 빨개진다. 자면서 뭔가 끄끙거리고 있었고, 다음 순간 요란하게 배설하는 소리가 울렸다.

신영 : (머리를 부여잡으며) 왜 이래? 이거, 로봇 설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성재 : (담담하게) 그럴 리 없어. 아기의 체질이나 특징은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쾌변이라는 것도 그중 하나일 거야.

신영 :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어서 뭐라 할 수도 없네. 근데 그게 더 짜증나.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심한 변비에 걸릴 것 같아. (어깨를 툭 떨구면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그래. 쾌변은 아기의 체질로서 좋은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기저귀 갈아주기가 귀찮기는 해도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것보다 고민스러운 일은 밤마다 울어대는 거지. 새벽 2시를 지날 때쯤이면 진주는 정해놓고 울기 시작해. 분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도무지 그치지 않고 마냥 울어대. 그런 때는 계속 선 채로 품에 안고 바이킹처럼 흔들어 주는 수밖에 없어. 진주가 언제 울음을 그치고 잠들어 줄 지는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어. 며칠이 지나자 진주의 마구잡이 떼쓰기는 점점 더 박차를 가하듯 심해졌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진주를 달래주는 신영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영 : (진주를 얼려주며 성재 씨에게) 밤에 우는 것도 프로그램의 결과야?

성재 : 아마도. (등을 돌린 채 대답한다.)

아침이 밝아왔고, 신영과 성재는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

신영 : 애써 품에 안고 재워도 침대에 눕히면 금세 또 깨서 울어대는 거야. 쇼핑을 하려고 유모차에 태워도 10미터도 못 가서 울음보를 터뜨리는 바람에 결국 내가 안고 가야 해.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성재 : (양팔을 으쓱 펼쳐 보이며) 글썸. 아 참, 나 오늘 밤에 좀 늦을 거야. 아마 10시쯤?

신영 : 어라, 내가 미용실 예약했다고 말했잖아. 오늘은 당신이 7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성재 :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겼어. 회사에서 빅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얘기했었지? 나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신영 : (입을 툭 내밀며) 어렵사리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미용실을 찾아 예약했는데.

성재 : (포크와 나이프를 손에 든 채 몸을 쭉 내밀며) 내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한다는 건 진주를 키우기로 결정할 때 당신이 원했던 방침이야.

신영 : (뭔가 기억났기 때문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때였다.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성재 : 당신 찾는 모양이야.

신영 :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알아 나도.

3

진주를 데려오고 일주일이 지났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아. 종일 쉴 새 없이 기저귀를 갈아 주고 분유를 먹어야하니깐. 그뿐만이 아니야. 진주는 이제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게 되었어. 문득 돌아보면 슬라이퍼를 물어뜯고 전기선을 주물럭거리고. 아무튼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다는 거야. 밤에 우는 것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일단 울음보가 터지면 도무지 그치지 않는 건 여전했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웬만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갔어. 집 밖에 나가는 건 쇼핑할 때뿐이지만 언제 진주가 울음을 터뜨릴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차분하게 물건을 고를 수가 없었으니까.

이러느니 진주를 돌려보낼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 처음 약정한 기간보다 일찍 돌려보낼 경우에는 남은 날짜 수에 따라 페널티를 지불한다는 계약에 따라서. 육아를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는 배려에서 나온 규칙인 모양인가. 또, 육아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아기 로봇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 또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

이건 큰 실수였어. 애초에 시작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주의 속옷을 세탁하다가 퍼뜩 깨달았어. 오늘은 진주의 울음소리를 아직 못 들었잖아. 아침에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자고 있었고 분유를 달라고 칭얼거리지도 않았어.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는지 보러갔어. (침대 안에 누워있는 진주를 보여주며) 하지만 잠이 든 건 아니었어. 뭔가 축 늘어진 기색이었지. 그 얼굴을 보니 흠칫하더라. 평소보다 불그레한 것이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뺨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 뜨거웠거든. 전용 체온계로 재보

니 40도 가까이나 되더라.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화상통화기 앞으로 서두르는 신영을 보여준다.

신영 : 성재씨!

(평소 같으면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와야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회의 중'이라는 투명스러운 글자였다.)

신영 : (진주를 품에 안았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지. 다른 보통 아이라면 병원에 데려가겠지만, 애는...하...(화상통화기의 화면을 전환한 뒤) 강남점 연결해줘!

(잠시 뒤 진주를 데려올 때 안내해주었던 남자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다.)

박사 :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무슨 일이십니까?

에리 :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박사 : (침착한 말투로, 흔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눈치의 얼굴을 하며) 그렇습니까, 발열이군요. 그러면 저희 회사로 데려오시겠습니까. 전문 의사가 대기 중이니깐요.

에리 : 전문 의사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우선 난 진주를 안고 회사로 향했어. 도착하자마자 클리닉 센터라는 곳으로 안내해주더라.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병원을 보여준다. 평범한 병원과 똑같이 대

기실이 있고 여러 명의 엄마들이 순서를 기다린다. 모두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

박사 : (신영의 귓가에 대고) 저 사람들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와 있는 것뿐이에요. 아기가 열이 났을 때는 한시바삐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익숙해지기 위해 실제처럼 연출한 것이죠.

신영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일단 감사합니다.

(30분이 지난 시계를 보여주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간호사 : 이진주 어린이, 진찰실로 모실게요.

(진찰실로 들어가니, 박사의 명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 간호사 차림의 여자도 들어왔다.)

의사 박사 : 발열로 인한 가벼운 탈수 증상이군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치료용 드링크를 드릴 테니 시간 맞춰 먹여주세요.

진료가 끝나자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의사 설정의 박사는 그럴싸하게 진주의 몸을 진찰한 뒤에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지. 의사라 해야할지 박사라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말대로 진주에게 드링크를 먹이기로 했어. 자꾸 뱉어내는 바람에 무척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정해진 복용량을 먹일 수 있었어.

진주는 곧바로 잠이 들었어. 얼굴빛이 조금 회복된 것처럼 보여서 안도감이 들더라. 그런 마음은 벌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놀랐어. 어느새 이 로봇을, 이 아이를, 내...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싹트고 있었던 걸까.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한밤중에야 돌아온 성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영 : (외출복을 벗는 성재의 곁에서 오늘 일을 설명하며) ...병원 갔다왔어.

성재 :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힘들었겠네.

신영 : 성재 씨는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답답했어.

성재 : 미안해. 아무튼 오늘은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지.

신영 : 여전히 회사 일이 바쁘구나. 당신도 힘들겠다.

성재 :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처 자식을 거느린 가장인데. (말이 끝나자마자 침대에 털썩 쓰러져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신영 : (성재를 바라보며)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건가...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어김없이 다음 날이 되었어. 성재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진주에게 드링크를 먹이고 때맞춰 기저귀도 갈아주었어. 이상하게도 이제는 냄새가 그다지 거슬리지 않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 다시 드링크를 먹이려고 했을 때, 침대 안의 진주가 나를 향해 방긋 웃었어. 그리고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라고 말하더라.

신영 : 오랜만에 성재 씨가 휴가를 낸 덕분에 진주를 데리고 온 가족이 쇼핑을 하기로 했어. 유모차를 밀며 대형 쇼핑몰 안을 나란

히 걸었어. 난생 처음. 평소에는 피곤하다는 말만 연발하던 성재 씨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말수가 많아졌더라. 그의 센스 있는 농담에 나는 웃음이 터졌고, 진주 앞에서는 일부러 괴상한 표정을 지어 까르르 웃게 만들기도 했지.

아동복 매장에서는 그야말로 신이 났지. 다양한 아기 옷을 진주에게 입혀보고, 약간 큰 사이즈의 옷을 찾아보면서 성장할 리 없는 진주의 미래를 돌이켜 이야기하기도 했지.

결혼도 그리 나쁘지 않은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고 있는걸까. 그 즐거움을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이런 비즈니스에 걸려 넘어가 체험을 하고 보니 조금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신영의 독백이 마무리되며, 전화를 받는 성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난감 매장에 들어서려던 때였고, 신영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성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걱정 넘치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성재 : (통화를 마치고 신영을 바라보며) 이거 큰일이네. 트러블이 생겼어. 지금 즉시 회사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신영 : 그래? 오늘은 외식할 줄 알았는데.

성재 : (신영의 얼굴에 두 손을 맞대며) 미안해. 이번에 못 한 외식,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꼭 하자.

신영 :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늘은 지금까지 재미있게 놀아줬으니까 용서해줄게.

성재 : 고마워, 그럼 진주 잘 부탁한다. (유모차 안을 바라보며) 진주야, 말 잘 들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뒤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간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돌리고 난 유모차를 밀며 장난감 매장으로 갔어. 진주에게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 너무 어려서 아직 게임 같은 건 못할 텐데. 마침 여점원이 눈에 띄어서 상의해보기로 했지.

신영의 독백이 마무리되며, 여점원을 보여준다.

점원 : 이 정도 아기라면 요즘은 홀로그램 점토를 구입하시는 분이 많아요.

신영 : 홀로그램 점토?

점원 :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작은 패널을 보여준다. 허공에 떠 있는 점토 영상을 손으로 만지자 자유자재로 형태가 바뀐다.) 아기의 성장에 맞춰 점토의 단단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영 : 와아, 재미있겠네요. (가격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애써 담담한 척 홀로그램 점토를 돌려주며) 한 번 둘러보고 결정할게요. (장난감 매장을 급히 빠져나오며)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갓난아이에게 이런 걸 사주는 건가, 고작 로봇 아이를 위해 이런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 하지만 실제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놀라는 신영의 얼굴이 보인다.

신영 : 유모차. 유모차 어디갔어! 진주야! (매장 밖으로 달려간다.)

신영의 독백이 다시 시작된다.

신영 : 비슷한 유모차가 눈에 들어와서 급히 달려가봤지만, 그 옆에 엄마인 듯한 여자가 있었어. 아기도 진주가 아니었어. 어디로 간 걸까. 유모차가 전동식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였을 리 없어. 누군가 일 부러 끌고 간거야. (성재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것은 이번에도 '회의 중'이라는 글자다. 허를 차면서 전화를 끊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한 참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 진주를 데려올 때 담당 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

회상 화면이 등장하며

박사 : 아이를 도둑맞거나 누군가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신속히 저희 회사로 연락해주시시오. 저희 쪽에서 경찰에 도난이나 기물파손의 피해 신고를 할 테니까요.

다시 신영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영 : 그래, 이건 유괴 사건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도둑맞은 거니까. 아니, 현시점에서는 도둑맞은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잖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분실신고에 들어가는 걸까.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그런 수속 따위, 아무려나 상관 없어. 어찌 됐든 진주부터 찾아야 해. 도난이 됐든 분실이 됐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니 경찰은 아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도 않을 거야.

하염없이 달렸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유모차를 못 봤느냐고 물어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아, 그리고 보니, 라면서 애써 기억을 더듬어주었지. 하지만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라고 해도 유모차는 곳곳에서 눈에 띄어. 못 봤다는 사람이 더 적은 거지. 그들의 말을 바탕으로 쇼핑센터 안을 사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유모차는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다가 한 여성분이 귀중한 충고를 해줬어. 쇼핑센터 안내방송실에 부탁해보라는 것이었어. 내 머리를 쥐어박고 싶더라.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정작 엄마라는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여성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또 다시 달렸어.

쇼핑센터 안내방송실로 뛰어들어 사정을 설명했어. 그 자리에서 즉시 이리이러한 유모차와 아기를 보신 분은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방송을 해주었어.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연락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일단 방송실을 나왔어. 흥분되는 머리를 진정시키며 열심히 생각을 굴렸지.

진주는 거의 진짜 아기처럼 보여. 그래서 누군가 약의를 품은 자가 진짜 아기로 착각하고 유괴한 것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진주를 데려간 다음에 범인은 어떻게 할까. 한시라도 빨리 이 쇼핑센터에서 나가려고 할 거야. 아, 자동차!

퍼뜩 깨달은 난 주차장으로 뺨다 달렸어. 대형 쇼핑센터인 만큼 주차장 규모도 거대했어.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줄줄이 세워져 있었어. 주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통로를 지나가고, 때로는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했어. 하지만 어디나 비슷비슷한 구조여서 한참 돌아다니는 사이에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문득 돌아보면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기도 했어. 그야말로 거대한 미로랄까.

범인은 틀림없이 진주를 이곳으로 데려왔을 거야. 계속 매장 쪽에 있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목격했을 거야. 유괴하자마자 범인은 진

주를 주차장으로 데려온 거야.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미 도주한 것일까. 범인이 유모차를 차에 싣고 지금은 어딘가 인근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성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성재에게 전화를 거는 신영의 얼굴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금세 성재의 얼굴이 나타나서 어이없어 하는 신영.

성재 : (느긋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쇼핑은 재미있었어?

신영 : (분통을 터뜨리며)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진주가 유괴됐단 말이야!

성재 : (얼굴이 즉시 팽팽하게 굳어버린 채로) 뭐라고?

신영 : (그동안의 상황 설명을 끝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나 혼자 짚짚매고 있는 참이야.

성재 : 그러면 회사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신영 : (빠른 말투로 쏘아붙이며) 무슨 소리야? 이건 유괴야, 유괴! 혹시 진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성재 : 그래도……

신영 : 아무튼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줘. 둘이서 진주를 찾아봐야지.

성재 : 아, 그건 어려워. 아직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은 도저히 회사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니까. 신영야, 미안하지만 너 혼자서 어떻게든 해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해약을 신청하고…….

신영 : 아니, 됐어. 당신한테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거야. (전화를 끊는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로 여겨지더라. 그때였어.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귀를 기울였고, 틀림없이 진주였어. 진주가 울고 있었어. 필사적인 심정으로 소리 나는 방향을 찾아보았어. 울음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메아리쳐서 좀체 방향을 잡기가 어렵더라. 그래도 온 힘을 다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이동하며 찾아보았어. 큰 차량이 많아서 저만치 앞쪽은 내다보기도 힘들더라.

진주야, 대체 어디 있어. 그러던 와중에 시야 끝에서 뭔가 움직인 듯한 느낌이 들더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눈에 익은 작은 갈색 유모차가 자동차 사이를 가로질러 획 지나갔어.

급히 그쪽으로 뛰어가며 “진주야!” 소리쳤지.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유모차는 사라지고 말았지.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니, 다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유모차가 획 지나갔지. 냅다 뛰었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거리는 조금씩 좁혀져갔으니. 범인이 어떤 자인지는 모르지만 자칫 궁지에 몰리면 이쪽을 공격할지도 몰라. 그래도 난 물러서지 않을거야. 진주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었어.

마침내 범위가 좁혀졌어. 차량 몇 대의 뒤쪽 어딘가에 범인은 진주와 함께 숨어 있을 터였어. 그 증거로, 이제는 바로 가까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다리가 벌벌 떨렸어.

신영의 독백이 끝난다.

신영 :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범인을 향해 소리치며) 숨어봤자 소용없어! 그만 포기하고 어서 나와!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이윽고 몇 미터 떨어진 차량 틈새로 유모차가 눈에 들어오고, 난 몸을 긴장시켰지. 유모차를 밀면서 범인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범인의 모습은 없었고, 유모차만 움직이고 있더라. 어떻게 된거지? 어리둥절해서 멀뚱히 서버린 순간, 유모차가 빙글 방향을 바꾸었어. 게다가 맹렬히 내달리기 시작했지. 대체 뭐야? 잠깐, 잠깐만!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아갔어.

주차장 통로를 유모차는 계속 직진했어. 속도를 늦출 기미조차 없었어. 그대로 가다가는 벽에 부딪히고 말거야. 처참한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어.

벽과 충돌하기 직전에 가까스로 내 손이 유모차 핸들을 붙잡았지. 전동모터의 전원을 끄고 내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지. 구두가 바닥에 지이익 끌렸지.

정신을 차렸을 때, 유모차는 멈춰 있었어. 벽까지의 거리는 고작 2미터. 흐늘흐늘 내 몸을 일으켜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았어. 진주는 울음을 그친 상태였고, 내 얼굴을 보더니 “엄마!”하고 웃더라. 난 그날 바로 진주를 끌어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박사에게 전화를 건 신영의 모습이 보인다.

박사 : (화면 속에서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신영 : (소리치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 : 유모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조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오작동을 일으킨 모양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저희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신영 : 뭐예요? 그걸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박사 : 아뇨, 그 점은 완전히 저희 쪽 실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다른 로봇을 즉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피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신영 :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유사 육아체험이라면 아기의 안전 관리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박사 :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즉시 저희가 다른 유모차를 준비하도록……

신영 : (진주를 품에 안고 쓰아붙이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직접 안고 다닐 테니까.

5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마침내 진주와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 즉,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지. 마지막으로 진주를 돌봐주었어.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톱과 발톱도 깎아주었어. 욕실에서 몸을 깨끗이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어. 이번 장기휴가 동안에 완전히 육아에 익숙해졌어. 이제는 진주가 진심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더라. 가능하다면 돌려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성재와 박사, 그리고 신영과 진주가 있다.

성재 : 끝나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였네. 그래도 오늘은 나랑 함께라서 다행이다.

신영 : (진주를 다시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인다.)

박사 : 어떠셨습니까?

신영 : (솔직한 느낌으로 허심탄회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육아는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박사 : 그렇습니까. 로봇을 확인해봤는데 그동안 애지중지 잘 키워 주셨다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고객님께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신영 :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오며) 그럴까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박사 : 실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는데) 이용하시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고객님께 몇 가지 시련을 안겨드리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었습니다.

신영 : 시련이라고요?

박사 : 이를테면 아기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다치거나 밤에 계속 울어대는 것입니다. 돌연 행방불명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신영 : 앗, (입을 벌리며) 그럼 그 유모차 폭주 사건도?

박사 : (머리를 숙이며) 네, 그렇습니다. 육아는 소꿉장난이 아니지요.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위기관리는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 그런 사항들을 착실히 배워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것입니다. 애를 태우는 일도 많으셨겠지만, 모두 저희의 그러한 바람 때문이니 널리 이해해주십시오.

신영 : 그랬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박사 : 하지만 고객님께서도 냉철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신영 : 그때는 나도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박사 : 바로 그것이 부모의 강한 면모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번 기회에 아이를 갖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건?

신영 : (고개를 갸웃하며) 글썩요. 아직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군요.

박사 :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객님의라면 잘하실 수 있어요.

신영 : 육아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전 단계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아직도.....

박사 : (옆에 서있는 성재를 보며)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 (공손한 얼굴로 앉아서 머리를 숙이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영 : 사과할 건 없어요. 당신은 내가 처음에 희망했던 대로 남편과 아빠 역할을 잘해줬어요. 대화도 능숙하고 매사에 합리적이었죠. 회사 일에 전심전력 열정을 쏟았고, 혹시라도 집안일 때문에 직무를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두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일이죠. 당신과는 진주를 만나기 전에 연인 설정으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성재 :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성재 씨는 사실 회사와 계약한 가상 아빠 전문가야. 유사 육아체험을 하고 싶은데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는 여성을 위해 회사 측에서 준비해준 남자지. 이 회사에는 20여 명의 가상 아빠가 등록되어 있다고 들어. 그들은 여성의 취향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그 이상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어. 분명 성재 씨도 연인으로서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가 회사에 다니거나 큰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것은 모두 설정상의 일이었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신영의 얼굴을 보여준다.

신영 : 내 경우에는 육아에 동반자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은 회사 일도 희생해줄 만큼이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다음 단계의 일은 생각할 수 없겠죠.

박사 :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를 바라본다.)

성재 : (박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그렇게 내 여름 한 철의 체험은 끝이 났어. 내일부터는 다시 회사 일도 돌아가겠지. 집에 도착하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개는 스페이스셔틀을 이용해 30분 동안의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길이라고 하더라. 무중력 체험. 재작년에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경치도 한없이 단조롭기만 하고.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친구는 이번 장기휴가 때 뭐했는지 물어보더라. 그래서 난 이번 여름에 체험한 일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친구는 화상 전화 화면 속에서 과장스럽게 놀란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더라.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신영의 얼굴을 보여준다.

서현(친구1) : 신영,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신영 : 왜?

서현 : 그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해? 나랑 동갑이니까 올해로 예순…….

신영 : 닥쳐!

서현 : 이제 어지간히 결론을 내지 그래? 아니, 그보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냐?

신영 : 허, 왜 포기를 해? 냉동 난자를 보관해뒀으니 상대만 찾으면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해. 인공자궁 기술도 진즉에 확립되었잖아. 아무 문제도 없단 말야.

서현 : 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텐데? 여태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결혼 안 했잖아. 이제 슬슬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신영 : 아니, 난 그가 내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한 언제까지고 망설여볼 생각이야. 아직 오십인데 뭘. 평균수명의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서현 : 그 사람 얼굴, 이름 그 무엇도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다며. 근데 무슨 수로 다시 만나?

신영 : (생각에 잠시 빠진 뒤)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Epilogue. 1

화상 전화가 종료된 신영의 얼굴이 보이고,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지금이 몇 년도냐고? 2046년. 내 집, 내 방에서 해외 여행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신'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2021년의 사람들은 실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뤄졌어. 50살인 내가 어린 촉에 속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가상 현실이 일상이 되었지. 내 침대 본 적 없나? (침대를 보여주고 웃음을 지으며) 캡슐이잖아.

많은 일들이 있었어. 2046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이 55살이고, 2021년의 나는 30살이었어.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실에 찌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머뭇거리며) 그 사건이 없었다면 말이야.

찰나의 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

리고 이걸 느낀 그때를 난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 이 순간이 낭만적인 이유는 지금도 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니까.

Epilogue. 2.

박사의 명찰이 공개된다. 박사의 명찰에는 승우라고 써져있다.

승우 : 저들이 진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었나? 진주야. 잘 기록해왔니? 너는 프로그래밍되고 직접 임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2046년의 모습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했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알고 있지? (진주의 로봇 화면에 사물 인터넷에 관한 정보가 쭉 나열된다.) 맞아. 그거. 우리 삶을 편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참 신비한 것이지. 어딜 가든 간편하게 필요한 걸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 날 쉽게 감시하고 그들이 만들어 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거든. 그걸 다 겪고도 아직 깨달은 게 없는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 2 -

마음 속에 환한 불빛이 켜진 것처럼

Prologue

1장에 등장하였던 신영이의 어릴 적 사진이 보이고, 그와 동시에 신영이의 아버지 재홍의 얼굴이 보인다. 그리고 재홍의 독백이 시작된다.

재홍 :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무작위의 산물이니까요. 이 말이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이 아이디어에 익숙할 겁니다. 이미 두 개의 유전자가 무작위로 만나서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는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완전히 유일무이한 사람을 만들어내죠.

(보자기에 쌓여있던 펜을 들며)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140억 년 전에 우주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초기 우주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양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이 급속한 팽창으로 우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변화들이 육안으로 보이게 되었죠. 오직 크기만 늘어나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팽창은 열 배나 백 배가 아닌 그 이상 배로 늘어납니다.

핵심은 양자요동이 팽창으로 인해 늘어나면서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의 근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위보다는 약간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은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른 물질들을 끌어 당겨 별과 행성을 만들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별들은 다른 별들을 끌어당겨 은하처럼 우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물체들은 우주를 통해 다른 물체를 끌어당겨 복잡한 우주 전파의 거대한 실타래

를 만듭니다. 양자요동이 우주로 바뀌는 이 우주팽창이론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물이 움직이는 방식에 익숙할 겁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공은 언덕에서 굴러다니는 등등 다른 방식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수십억 배로 작아져 양자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면 여기서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로 모든 것이 계속해서 결정됩니다. 양자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가 어디를 보는지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감정의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단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모든 인류가 두 개의 작은 세포로 만들어지고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와 모든 행성, 별 그리고 우주가 세포보다 수십억 배 작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주사위를 던지듯 무작위로 형성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사위가 다르게 굴러갔다면 어땠을까요? 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해온 게 아닐까요? (펜이 클로즈업된다.) 딱 한 번 우리가 또 다른 우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 그 기회를 쓰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경은 2021년이다. 전화가 걸려 온 것은 신영이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철판구이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칼질 솜씨를 선보이고 있을

때다. 손목에 차 있는 애플워치¹⁾가 부르르 진동하는 것은 알았지만 상관없이 계속 두 손을 움직인다. 고기를 잘게 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길을 높이 피워 올려 카운터를 마주하고 앉은 손님들을 기쁘게 해준다. 오늘 밤에는 어린아이도 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퍼포먼스에 힘을 쏟는다. 그러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조용해진다.

c자 모양으로 배치된 철판 주위에 둘러앉은 손님들은 여덟 명으로, 그중 세 명은 한국인이다. 하지만 여행객이 아니라 보스턴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린아이는 열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이다.

승우 : 이렇게 가까운 곳에 철판구이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줄 몰랐어. 게다가 가격이 꽤 합리적이네. 다행이야.

은수 : 그러게, 뉴욕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런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신영 : (다 구워진 고기를 각자의 접시에 나눠주며)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오. 철판구이 외에도 다양한 한식 요리가 있거든요.

은수 : 그래야겠어요. 비빔밥이랑 덮밥이 있는 것도 너무 반가워. (신영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근데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는데, 요리사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영 : 그렇습니까? 흔한 얼굴이니까요.

은수 : 그렇지 않아요. 요리사로 일하기에는 아까울 만큼 아름다우신데요. 그렇죠?

승우 : (신영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젓가락을 놀리며) 응. 그러네.

신영 : (머리를 숙인 뒤) 고맙습니다. 그럼 편안히 드십시오. (일단 주방으로 걸어 나간다.)

1) PPL 아납니다.

신영은 주방으로 와서 애플워치를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한다. 놀랍게도 전화를 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성재이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했지만 좀체 연락해온 일은 없다. 메시지도 들어와 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손이 비는 대로 연락해달라는 것이다. 메시지를 입력하기 귀찮은 신영은 전화를 한다.

성재 : (곧바로 연결되고 국제전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 여보세요?

신영 : 응, 나야. 근데 무슨 일이야? 그쪽 시각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은 한창 일하는 시간이야.

성재 : 그럼 용건만 말할게. 다음 주 20일에 집에 올 수 있어? 한국 시간으로 20일이니까 그쪽은 19일인 건가?

신영 : 뭐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날 무슨 일 있어?

성재 : 잊어버렸어? 그날 너희 아버님 생일이잖아. 그래서 작게나마 파티하려고.

신영 : 뭐야, 그게? 그런 일로 미국까지 전화하지 말라고. 나, 진짜 바빠.

성재 : (뭔가 절박한 느낌으로) 꼭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신영 :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런 일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냐고.

성재 :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야.

신영 : 뭐가?

성재 : 아버지 만나는 거.

신영 : (흠칫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숨을 가다듬고 나서) 무슨 말이야?

성재 : 암이야, 말기 암. 간하고 췌장하고…… 여기저기 다 전이됐어.

신영 :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기에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

빠지며) 나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성재 : 너한테는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 너도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신영 : (다시금 대꾸할 말이 찾아지지 않는다. 모두 자신을 걱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암이라니………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성재 : 의사 선생님은 이제 손써볼 도리가 없대. 아직까지는 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아마 여기저기가 엄청 아플거야.

신영 : (핸드폰을 움켜쥜다. 아버지가 곧 죽는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알미울 만큼 땀뻘뻘했는데, 이렇게 전화로 듣는 것만으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

성재 : 한국 좀 오면 안돼? 그랬다해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여야지.

신영 : (심호흡을 하고 나서 입을 연다) 나 같은 딸, 보고 싶지도 않을 걸?

성재 : 왜 그런 소리를 해?

신영 : 왜냐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나는 의절당한 처지야. 벌써 7년이나 만난 적이 없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새삼 무슨 낯을 들고 찾아왔나 싶을 거야.

성재 : 그런 게 어딴어! 세상 어디에도 죽음 앞두고 친자식을 안 보려는 아버지는 없어.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차마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못해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버지도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영아, 부탁이야. 꼭 돌아와.

신영 : 실은 다음 주에 미팅이 있어.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야. 그걸 놓칠 수는 없어.

성재 : 미팅? 그랬구나…….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신영 : (머릿속에서 급히 계산해보며) 생신 파티가 그쪽 시간으로 20일이랬지? 그러면 한국에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편으로 출발

하면 아슬아슬하게 시간은 맞출 수 있는데.

성재 : (억지로는 밀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목소리 톤이 푹 떨어지며) 그건 좀……. 아무래도 힘들겠다.

신영 :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그럴 마음이 들면 돌아갈게. 하지만 어려울지도 몰라.

성재 : 알았어.

신영 : 지금 일하는 중이라 그만 끊을게. (전화를 끊는다.)

손님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세면실에 들러 옷차림을 가다듬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린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아버지의 외모를 꼭 빼닮았다는 말을 듣는 게 옛날부터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 우리 집은 대대로 그 지역 정재계를 떠맡아왔고, 내 아버지도 몇 군데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난 그저 그런 지역 국립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가 회장을 맡은 지역 전자 부품 제조 회사에 취직했어. 물론 특별대우 따위는 없었지.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업무 태도를 비교받고 평가받았으니까. 그 회사를 1년여 만에 그만둔 것은 그런 대우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야. 주어진 업무가 싫어진 것도 아니야. 이유는 단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프로그래밍. 고등학교 시절부터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어. 대학에 들어가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많은 코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항상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지. 꿈은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취직한 뒤에도 줄곧 고민했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꿈을 버려도 괜찮은가. 이대로 회사원으로 살아가도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는 일 없이 결론을 내렸어.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 내 책임이라고, 각오를 다졌지. 도전 없이 행복은 없다. 내 인생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상관없다고.

물론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지. 가장 분노한 사람은 아버지(재홍)였지.

재홍 : 겨우 1년 만에 회사를 때려치우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페이스북? 웃기는 소리. 그게 될 것 같냐. 기껏해야 IT 회사에 취직해서 비중도 없는 직원 여러 명 중 한명으로 끝날 게 뻔하지. 그런 짓을 하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 회화를 가르쳤던 게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말고 회사로 돌아와. 사표는 없었던 일로 해줄게.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신영 : 회사 일을 때려치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업무는 빈틈 없이 분명하게 마무리했어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재홍 :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누구라도 지금 자기 일이나 처지에 만족하고 사는 건 아니야. 그 안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거지.

신영 : 꿈을 버리고서 삶의 보람이고 뭐고 있겠어요?

재홍 : 그런 걸 어리광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누구 덕에 풍족하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이제 네가 그 보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은 왜 못해?

신영 : 그러니까 그걸 다른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홍 : 지금 장난하는 거냐? 꿈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줄 만큼 내가 한가하질 않아.

신영 : 아무도 아버지한테 장단 맞춰달라고 한 적 없어요.

재홍 : 하나뿐일 자식이 얼빠진 소리를 하는 데 가장이 말 없이 내 버려둘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너 좋을 대로 해. 하지만 더 이상 너와 나는 부모 자식도 뒳도 아냐. 당연히 일절 너를 원조 해줄 일도 없어. 어딘가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도 뼈도 거둬주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신영 : 아빠와의 대화는 언제까지고 평행선이었어. 분을 삭이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지. 나와, 의절하겠노라고. 알았어요, 나 좋을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온 것이 7년 전이었어. 그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를 했어. 어려서부터 영어회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언어 문제로 곤란할 일은 거의 없었지.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것 따위, 미국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인 거지. 현실은 각오한 것보다 훨씬 더 엄혹했지. 국내에서의 공식적인 실적도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가 돌아올 만큼 미국 IT 산업계는 달콤하지 않았어. 어쩌다 있더라도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실적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지.

그래도 조그마한 외주 일들을 도맡으며 이따금 대기업에서도 불러주게 되었어. 물론 비중 없는 팀원 중 한 명일뿐이었지만. 조금 전 여자 손님이 나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그 손님, 내가 속했던 팀의 팀장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이번 기회가 왔어.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이 결정되었는데 그 팀원을 뽑는다는 거야. 그걸 공개적인 면접으로 정한다고 했고. 무명 프로그래머라도 대환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다운 일이었지. 즉시 신청해본바, 서류 심사는 통과했어. 실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

내 꿈은 부풀어 올랐어. 꼭 이 대회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도 대히트를 친다면 그동안 바보 취급

을 했던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노라. 개선장군처럼 귀국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얼굴을 할까. 그게 가장 기대가 됐지. 하지만……. 조금 전 성재의 말에 의하면 설령 합격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줄 일은 없을 것 같더라.

2

신영의 독백이 열차에서 시작된다.

신영 : 인천국제공항에서 본가를 향하는 열차에서 밖을 내다보며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고 나는 감개에 젖었어.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것은 단 7년 동안이고, 지금 보는 풍경이 딱히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옛 기억을 자극받는 듯한 느낌이었어.

친지들을 만나면 우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근황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서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으리라. 허세를 부리는 인간을 상대하는 건 피곤한 일이지. 고생하고 있다, 좀체 잘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오히려 모두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답이 아닐까. 응, 그러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건 좋지 않지. 그렇게 마음 속으로 방침을 정했어.

부산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탔어. 다시 손목의 애플워치가 진동하더라. 성재인가 했는데 표시된 번호는 전혀 모르는 번호였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신영은 전화를 받는다.

신영 : 여보세요?

재홍 : (나지막하고 목썬 소리로) 신영이냐?

신영 :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금세 상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 그런데요.

재홍 : 나다, 알겠냐?

신영 : 응……아버지잖아요

재홍 : 맞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신영 : 어디냐니, 왜 그런 걸 물어요?

재홍 : 묻는 말에 대답해. 어디야? 이미 국내에 들어왔지?

신영 : 부산역이에요.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재홍 : 허, 그래?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지?

신영 : 깨달다니, 뭘요?

재홍 :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꿈을 꾸었는지. 뭐, 하지만 됐다. 신경 쓸 거 없어. 젊은 시절에는 이래저래 착각도 하는 법이지. 모두가 자신을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옛날에는…….

신영 : 아, 아버지, 잠깐만요. (재홍의 말을 가로막으며) 무슨 말이에요? 바보 같은 꿈이라니, 그게 뭡니까?

재홍 : 글썄 예전에 네가 엄청 허풍을 떨었잖아.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떠들면서.

신영 : 그 꿈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요.

재홍 :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리며) 포기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었니?

신영 : 포기할 리가 없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좌절해서 국내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생신이니 꼭 참석하라고 성재가 부탁을 하길래 마지못해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잠깐 얼굴 내밀고 그 즉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재홍 : (허를 찌는 소리가 들리며) 야야, 관둬. 너 같은 녀석이… 이 참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해. 일할 곳은 내가 마련해줄테니까.

신영 : 내 일자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미팅이 성사될지 말지는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재홍 : 뻔하지, 뭐. 승부에서 이길 사람은 미리미리 빈틈없이 최상의

준비를 하는 법이야. 큰 승부를 앞두고 터덜터덜 귀국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주겠냐?

신영 : 아버지 생신 축하하려고 먼 길 급하게 달려온 딸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재홍 : 나는 축하해달라고 한 적 없어. 애초에 이 나이에 생일 따위, 좋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하지만 뭐 됐다. 기왕 왔으니까 들어와. 만나서 천천히 상의해보자. 너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신영 : 아뇨.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집에 갈 생각은 없어요. 나는 이 길로 미국에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미팅 준비나 할 겁니다.

재홍 : 바보같이 굴지 마.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신영 : 아버지를 만나는 게 더 쓸데없는 짓이겠죠.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님께) 저, 부산역으로 다시 돌아가주시겠어요.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어쩌면 아버지가 다시 전화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 수신된 전화는 없었어. 물론 나도 전화할 마음은 없었고. 복잡한 심정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지. 방금 전에 바라본 풍경을 다시 눈에 담으며 밖을 바라봤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신영은 성재에게 전화한다. 곧바로 연결된다.

성재 :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환한 말투로) 신영이니? 무사히 도착했구나. 지금 어디야?

신영 : 부산역까지 갔었는데,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성재 :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뭐라고? 무슨 일인데?

신영 : 무슨 일인지는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알 거야. 아무튼 나는

집에 안 가기로 했어.

성재 : 아버지라니? 왜 그렇게 된거야?

신영 : 글썄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안다니까.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 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통화를 끝낸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아마도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마지막까지 내 꿈을 이해받지 못한 것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부너지간이라고 해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인연이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나, 하고 지독히 가라앉은 생각을 품기도 했지.

3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신영이의 모습이 보인다. 지난번 귀국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역으로 가 택시를 탄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은 없다. 당연하다. 그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었으니까.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능하면 빈소도 지키고 장례식에도 참석하라고 성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이를 전의 일이었어. 용태가 급변해 위독한 상태라는 얘긴 그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귀국할 수 있게 미리 준비는 해놓고 있었어.

본가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성재가 문상객을 맞을 준비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온 내 얼굴을 보더니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

신영의 독백이 끝난다.

진영 : (원망하는 어조로) 네 아버지 생신 때 온다는 말은 성재에게서 듣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신영 : 그 일에 대해서는 성재한테 전화로 얘기했어.

진영 : 애, 그거.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 성재한테 그 말 듣고 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 녀석은 그냥 내버려두라고만 하시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신영 : 부산역에 도착해서, 자, 이제부터 택시를 타자, 하는 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

진영 : (신영과 성재의 얼굴을 번갈아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네? 아버지가 어떻게 네가 돌아오는 걸 아셨을까?

신영 : 성재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

성재 : 아냐, 난 말 안했어. 애초에 생신 파티 자체가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는 깜짝 파티였는데?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성재에 의하면 파티는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특별실을 빌려서 치렀다고 해. 친척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지인들도 오셔서 상당히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야.

신영의 독백이 끝난다.

성재 : 너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직 파티 준비 중이었어. 아버

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을 거라고.

신영 : 누군가 얘기해준 모양이지.

성재 : 그럴 리가 없는데? 게다가 신영이 네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나와 너희 어머님뿐이었어.

진영 : 난 얘기하지 않았어.

성재 :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너 번호를 알았지?

신영 : 나는 그것도 네가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미국 건너간 뒤에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성재 너뿐이니까.

성재 : 아버지한테는 알려드린 적 없어. 묻지도 않으셨고.

신영 :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진영 : 그걸 모르니까 이상하다는 거잖니.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분명 기묘한 이야기지. 아버지는 어떤 마술을 쓴 걸까. 또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아버지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걸었을까. 그런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난 그대로 집에 들어왔을 거야. 직접 만나 설교하고 싶었다면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셨으면 될 일이 아닌가.

성재가 신영의 독백을 막는다.

성재 : 그나저나 신영, 너 미팅은 어떻게 됐어?

신영 :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어깨를 움츠리며) 떨어졌어.

성재 : 아휴, 그랬구나.

신영 : 최종 후보까지는 올라갔는데...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사실 거짓말이었어. 실제로는 그 직전에 떨어졌거든. 이유는 알 수 없었지. 선발 담당자들은 떨어뜨린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필요한 인재를 픽업할 뿐이고, 난 그들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거지. 단지 그것뿐이야. 당초 담당자는 미팅에서 나한테 온갖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들떠 있었는데 최종 선발에 남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

충격으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 아니, 지금도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무것도 할 마음이 나지 않아 하릴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은 포기해야 하는건가'라는 생각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 그런 때에 여길 왔고.

4

신영 : 꽤나 빈소는 성대하게 차려졌어. 문상객에의 대접은 웬만한 파티 규모였지. 어머니는 지역 유력인사와 회사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로 정신이 없었어. 장녀이면서도 집을 떠난 탓에 그런 역할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내 입장이 죄송스럽긴 했지만.

그들이 가고 나자 나와 성재 주위에는 친척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어. 7년 만에 본가에 돌아온 장녀를 그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 미국에서 수업 중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근황을 물어보길래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지.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대화가 시작된다.

당숙 : (단정적으로) 신영이는 괜찮아. 아무튼 이 집안의 장녀잖아. 틀림없이 성공할 걸.

고모 : 그렇죠. 뭐니뭐니해도 이 집안의 혈통을 물려받았잖아요.

신영 : (쓴웃음을 지으며) 혈통만으로 성공한다면 무슨 고생이겠어요.

당숙 :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이 집안의 혈통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참된 승부는 이제부터야. 이 집안의 후계자는 선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제 힘을 발휘하거든.

신영 : 그게 무슨....(저 멀리서 어머니의 부름이 들려와) 알겠어요~ 저 잠시 일어나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빈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마무리되고 당숙이 저 멀리서 신영을 부른다.

당숙 : 신영아. 너 그 얘기 들었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펜.

신영 : 아, 네, 그거야 뭐.

당숙 :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걸 물려받은 사람은 너야. 반드시 역대 어른들에게 지지 않을 만한 실적을 남겨야지. 꼭 사업을 성공시키라든가 엄청난 재산을 남기라든가 하는 게 아니야. 그에 걸맞은 행동을 관철하면 되는 게지. 그렇게 하면 결과는 나중에 저절로 따라와. 그게 그 펜의 힘이야.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강한 의지가 담긴 당숙의 말에 난 말없이 슬쩍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어.

그 펜.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야. 당대의 가장이 세

상을 떠난 뒤 그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 펜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고 위기에서 구해준다고 했지. 단, 그 힘을 물려받는 방법은 오로지 후계자만 알 수 있다고 해.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당숙이 말을 걸어온다.

당숙 : (웃으며) 신영아, 그 펜의 힘을 의심하는 모양이네?

신영 :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펜은 단순한 상징이고 그냥 저는 이 집안의 장녀로서 투철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당숙 :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절대로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야. 잠깐 내 얘길 들어봐.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 하지만 대대로 그래왔어. 그 펜을 물려받은 자는 그날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야. 배짱이 두둑해지고 승부에 강해져. 아버지도 그랬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겁이 많은 편이었지. 그런데 그 펜을 물려받고부터 사람이 싹 바뀌었어. 그야말로 담대하고 두려운 것 없는 인물이 되었지. 그리고 승부에 아주 강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생 일대의 기로라고 할 만한 승부에 여러 번 뛰어들어서 번번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일단 승부를 걸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위에서 누가 말려도 전혀 듣지 않았어.

신영아, 너에게는 할아버지이지만, 그 양반도 승부에는 아주 강했어. 본디부터 견실한 인품이지만 평생 단 한 번이라는 큰 투자에 성공해서 한 재산을 쌓아 올린 거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펜을 물려받고 그랬다는 모양이야. 그 펜을 물려받은 후계자는 가장 긴요한 승부에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뭐, 그래도 펜의 힘을 갖고서도 병에는 이기지를 못했구만. 좀 더 오래 살고 싶었을 텐데, 못내 아쉬웠을 거야.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어. 펜의 힘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 한 말이 있어.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노쇠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암으로도 좋다. 남겨진 수명을 맛보며 죽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뇌경색이나 지주막하출혈 같은 병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죽는 게 가장 안 좋은 경우니까 뇌의 질병에는 특히 조심했지. 혈압이 높아지면 뇌에 좋지 않다면서 염분이 높은 음식은 멀리하곤 했지.

그리고 보니 사고에도 아주 민감했었다. 특히 교통사고. 비행기나 선박은 무섭지 않지만 자동차는 무섭다고 자주 얘기하셨지. 비행기나 선박은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죽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 차 사고는 한 순간이니까. 자칫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다고, 그게 가장 싫다고. 참 기이한 가치관이었는데. 죽는 방식에도 자기만의 고집을 가질 정도로, 사업을 잘하는 만큼 얻게 된 괴팍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난 그 펜 싫어. 이 집안의 장녀로서의 책임이나 의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나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신영 : 밤늦게 친척들을 비롯한 문상객들이 떠나가고 빈소에는 가까운 몇몇 사람만 남았어. 오늘 밤에는 나와 어머니, 성재만 빈소에 머물기로 했지. 장례식을 거행할 홀에 가보니 성재가 관을 마주하고

철제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신영의 독백이 끝나고, 성재에게 다가간다.

신영 : (성재 옆에 자리를 잡으며) 고생했어.

성재 : 너도 수고했어. 미국에는 언제 갈거야?

신영 : (나지막한 신음 소리를 울리며)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장례식 끝나는 대로 갈까 하고 있어.

성재 : 그렇구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을 반대하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참에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볼 수 있겠네.

신영 : 지금까지도 아버지께 대해선 별로 신경 안 썼어. 게다가, 일단 미국에 돌아가기는 할 건데 실은 이제 슬슬 그만둘 때인가 하는 생각도 있어.

성재 : 꿈을...포기한다는 거야?

신영 : 뭐, 그런 얘기인 셈이지. 7년을 뛰어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그쪽에서 성공하는 데는 노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 타고난 뭔가가 필요해.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어.

성재 : 그게 뭐야. 마음이 약해졌구나. 호언장담하면서 집을 뛰쳐나갈 때의 그 기세는 어찌고?

신영 : 현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지.

성재 : 아까 당숙님과 밖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 펜...뭐야?

신영 : (어깨를 으쓱 치켜들고 얼굴을 찌푸리며) 다 들었는데 그걸 믿는거야?

성재 : 아니, 난 잘 모르지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분들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핵 바뀌었다며.

신영 : 난 기억 안나. 내가 철이 들 때부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단에 꾸며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본다. 골프에 그물린 아버지가 오만하게 앉아 있는 사진이다. 금세라도 미운 소리 한 마디를

날릴 것처럼 입가가 뻐뚱해져 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웃으려고 해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당숙이 뒤에서 신영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당숙 : 자정이 지났구나.

신영 : (손목시계를 보며) 그러네요. 3분 지났네요. 시간은 왜요?

당숙 : (들고 있던 가방을 열어 자주색 보자기와 봉투를 꺼내며) 오전 0시가 지나면 건네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신영 : (자리에서 일어나 당숙이 내주는 두 개의 물건을 받아 든다. 자주색 보자기를 풀어보니 다름 아닌 그 펜이다. 얼핏 보기에 흠집 하나 없이 요요한 빛을 내뿜고 있다. 그리고 봉투에는 붓글씨로 '유 언장/서신영 앞'이라고 적혀 있다. 할 말이 선뜻 생각 나지 않는다.)

당숙 : 성재야. 신영이가 생각할 게 있다고 하니 자리 좀 비켜줄까?

성재 :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네. (신영이의 손말을 한 차례 바라본 뒤에 말없이 출구로 향한다.)

당숙 : (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옆에서 찬찬히 읽어봐.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자리를 비워줄 테니까.

신영 : (봉투를 가리키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당숙 :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진지한 얼굴로 돌아와 말을 이으며) 하지만 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을 거야. 그것만은 틀림없어.

신영 : (비아냥거리며) 펜의 힘을 믿어라 같은 것이요?

당숙 : (신영의 비아냥거림을 가볍게 흘려 넘기고 진지한 얼굴로) 그럴지도 모르지. (홀로 나간다.)

신영 : (다시 철제 의자에 앉는다. 봉투는 단단히 봉해져 있다. 영정 사진을 다시금 올려다본다. 느긋한 표정의 재홍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 라는 말을 건네는 것만 같다. 한 차례 심호흡한 뒤 봉투 끝을

잡는다. 그대로 신중하게 봉한 것을 뜯는다.

찰찰 접힌 편지지이다. '어차피 별 내용 없을 거야'라는 표정으로 편지지를 열지만, 저절로 심장 박동이 빨라짐을 느낀다. 편지지를 펼치니 재홍이 친필로 쓴 글씨가 줄줄이 이어진다. 첫머리는 '이것은 서재홍이 남기는 유언장이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서신영뿐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행을 띄고 '신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침을 삼키려고 하지만 입 안이 바짝 말라 있다.

신영이에게

너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까. 어차피 설교하듯 뻔한 얘기가 지루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지레 지저워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이 유언장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집안에서 후계자에게 대대로 전해져온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 이 유언장은 한 마디로 말하면 취급 설명서야.

무엇에 대한 취급 설명서인가? 당연히 너가 방금 받았을 펜에 대한 것 말이다.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나는 너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김빠진 얼굴 표정이 눈에 선하다. 또 그 얘기인가, 하고 실망할 것이다. 아마도 친척 중 누군가한테서 미신이나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실컷 들었을 테니.

하지만 얄잡아 봐서는 안 돼. 이 펜은 단순한 부적이거나 상징 따위가 결단코 아니니까. 분명한 힘을 가진 물건이다. 그 힘은 억만금의 부와도 필적해. 아니,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겨진 시간은 적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전체는 여기서 그치기로 하자. 그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겠다. 그것은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다.

펜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 가지 주문을 읊으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타임슬립이라는 게 되겠지. 이것이 야말로 우리 가문에서 전해져오는 비기이자 가문을 번영시켜온 근원이며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하다.

아마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선친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 하지만 진짜야. 나의 선친은 이 힘을 사용하여 인생 최대의 무기를 통해 전 재산을 얻으셨다. 투자의 결과를 알고 과거로 되돌아가 그곳에 전 재산을 털어 넣은 것이다. 단 이 힘은 평생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다. 또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루뿐이다. 그리고 일단 한 차례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음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쓸지는 너의 자유다. 어떤 것이든 너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로또에 걸어보겠다면 그것도 좋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를 위해 남겨둔느 방법도 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도록 해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너는 한층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사용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썼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기로 한다. 멋대가리 없는 짓이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쓸데없다. 나와 똑같이 너 또한 유언 형식으로 제승자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말미에 주문을 적어두겠다. 네가 이 힘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빈다.

신 재홍

화려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신영은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진영과 성재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와준다.

신영 : 집 정리며 이런저런 수속에 일주일 정도 걸릴거야. 전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진영 : 그거 끝나는 대로 돌아올 거지?

신영 : 응, 그럴 생각이야.

성재 :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어떻게 할거야? 아버지가 남겨준 회사에서 일하려고?

신영 : 그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야. 왜? 안돼?

성재 : 아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신영 : 걱정하지 마. 나도 부모의 유산으로 놀고먹을 생각은 없어.

성재 :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지.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성재의 말이 뜨끔하게 가슴을 찌르더라. 하지만 그 아픔이 절대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지. 곧 오겠다는 인사를 건네고 걸음을 옮겼어. 역으로 출발하는 택시에 올랐어. 그리고 여행가방을 열고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지. 그 유언장이야. 이미 열 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읽고 싶어지더라.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나?

다 읽고는 매번 똑같이 진한 한숨을 내뿜어.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정말 사실일까. 애초에 이게 진짜 아버지의 유언장인가. 필적은 틀림없이 아버지 본인의 것이지만. 그리고 아버진 성격상 거짓말이나 농담으로 이런 글을 남길 사람이 아니야. 아니, 꼭 그뿐만이 아

나라 자신의 유언장에 잠꼬대 같은 거짓말을 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렇다면 사실인가. 펜 하나에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는 걸까. 유언장 말미에는 열여섯 개의 글자가 줄지어 적혀 있었어. 그것이 주문인 모양이야. 문장으로서의 의미 불명이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외우는 데 힘이 들지는 않았어. 아니, 사실 이미 머릿속에 똑똑히 들어있었어.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외투 안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어. 조금 불룩한 게 바로 펜이었지. 아무래도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 딱 하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당장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평생에 딱 한 번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없지.

하지만 유언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있었어. 당숙이 말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내가 겪고 기억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이 설명이 되니까.

승부에 나섰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여차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펜의 힘은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즉, 옆에서 보기에는 일생일대의 승부처럼 보였어도 전혀 모험이 아니었던 거지.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의 투자로 전 재산을 쌓았다고 했고, 그 뒤로는 견실하게 살았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그때 펜의 힘을 빌렸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당연히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한편 아버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몇 차례 중요한 투자에 승부를 걸었어. 만일의 경우에 펜에 의지할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힘에 의지하는 일 없이 성공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지. 그러니 몇 번이고 승부에 나설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힘을 언제 사용했을까? '멋대加里 없다'는 이유로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언장에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어. 펜의 사용 방법으로서, 절체 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를 위해 남겨두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한 것. 빈소에서 당숙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의 기이한 가치관에 대해서 돌이켜봤을 때 말이야. 비행기나 선박은 사고가 나더라도 죽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차 사고는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죽을 수 있으니 무섭다라는 것.

그 이야기도 아버지가 펜의 힘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아떨어져. 혹시라도 비행기나 선박에 탔다가 위험해지면 그 전날로 돌아가 탑승이나 승선을 피하면 되니까.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면 아무리 펜의 힘이 있어도 피할 도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뇌의 질병을 두려워하고 암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던 것도, 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의식을 잃으면 펜을 쓸 수 없으니 뇌의 질병은 영 좋지 않지만, 암은 그나마 의식을 잃는 일이 없으니 펜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뜻이 아닐까.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는 암으로 쓰러진 시점에 아직 펜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하지만 유언장에는 '사용했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 투성이잖아. 펜에 그런 힘이 있다면 분명 마음 든든한 일이니까. 운명이 걸린 대승부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혹시라도 단순히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설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승부에 나섰다가 아무 효과도 없이 실패해버린 사람은 없었을까.

생각해봤자 별수 없는 일이니, 펜의 힘 따위 믿지 않는 게 더 나으려나. 일단 그것보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에 한국에 돌아온 뒤의 일이지. 프로그래머의 원대한 꿈을 포기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아버지 회사에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이윽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역에 도착했어.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내려가 걸음을 옮겼지. 그런데 웬 양복 차림의 40대 남자가 창구 안의 담당자를 향해 뭔가 항의하고 있더라고.

신영의 독백이 끝난다.

승우 :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예정대로 운행만 했어도 우리가 계약을 따냈을 거야. 다른 회사에 빼앗긴 건 우리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이 열차 때문이잖아. 내 말이 틀렸어?

예원 : 정말 죄송합니다.

승우 : 정말로 죄송하다면 자꾸 머리만 숙일 게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예원 :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승우 : 그래도 기차표 구입하고 반환하는 일은 여기서 하잖아.

예원 : 그렇긴 한데요. 선생님 말씀은 구입이나 반환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서요.

신영 : 어...? 저 사람...한 달 전 내가 일하던 식당에 왔던 손님이잖아...?

손님, 하고 이웃한 창구의 남자 직원이 신영에게 말을 건넨다.

직원 : 이쪽으로 오시죠.

신영 : (옆에서는 조금 전의 남자가 아직도 뭔가 소리치면서 화를 낸다. 직원이 건넨 기차표를 받는다.)

승우 : 아, 됐어!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면 직접 윗사람들과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어.

신영 : (승차권 요금을 직원에게 건네면서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직원 : (쓴웃음을 지으며) 지난달 추락 소동 때문인데요. 열차가 운행 중지되는 바람에 거래가 성사가 안 된 모양인데 그런 일로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시니 좀 난감하네요.

신영 : 추락 소동이요?

직원 : 예. 저희도 피해자인데 말이예요.

신영의 독백이 시작된다.

신영 :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달 전이면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대잖아. 미국에 가 있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평소 국내 뉴스 다 유념해서 읽어보는데 아무래도 그때 미팅 때문에 바빠서 이견 놓친 모양이네.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검색해보았어. 그러자 기사가 금세 눈에 들어왔지. 민간 경비행기가 선로 위에 추락했다고. 그 일로 상하행선 모두 운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최대 여섯 시간까지 연착되었다는 것.

(신영의 휴대폰 속 사고 날짜를 확대하여보니 21일이 나온다.) 날짜가...아버지의 생신파티가 있던 그 다음날. 당초 예정대로면 미국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난 그날 아침 일찍 열차를 이용했겠지.

그렇다면, 그때 그대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난 다음 날 미국행 비행기에 타지 못했을 것이고 미팅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며)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쯤 프로그래머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을 거야. 미팅만 참석했어도, 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을거고, 그런 아버지의 생신 파티 따위 모른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발을 구

르며 후회했을 거야.

아,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딸인 내가 생신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걸었을까.

(외투 안 주머니를 뒤져 펜을 꺼내며) 어쩌면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한 그 시점에 이미 24시간 이내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깜짝 생신 파티가 열리고 그 자리에 하나뿐인 자식이 나타난다. 오랜만의 재회에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서서히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눈다. 이윽고 나의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 다음 날 아침 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 난 미국으로 돌아갈 방도를 잃고 일생일대의 미팅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는 것을.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는 실제 경험이었던 게 아닐까. 비탄에 젖은 딸을 위해 아버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단 한 번의 비술을 마침내 쓰기로 한 거야. 딱 하루만 과거로 돌아갔던 거지. 그리고 막 한국에 도착한 딸에게 전화를 한거지. 하지만 실제 사정은 설명할 수 없지. 그런 얘기를 해봤자 난 분명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터였으니까. 그래서 미운 소리를 해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한 거지. 아버지가 노린 대로 불끈 화가 난 나는 그 길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설마 그럴 리가. 이건 분명 우연한 일일 뿐이야.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경우밖에 없다는 확신이 커져만 갔어.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나를 위해 사용해주었다는 거잖아. 내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서. 그토록 반대했으면서.

유언장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너는 한층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만이 펜이 이 끌어주는 길은 아닌 거야. 아버지의 유지를 헛되이 할 수는 없지. 거기에 보답하지 않고서는 펜을 물려받을 자격 따윈 없다. 쉽사리 꿈을 내팽개치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더라.

신영의 독백이 끝난다. 신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둘러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재 : (걱정스러운 듯이) 왜 무슨 일 있어?

신영 : (큰 소리로) 예정을 변경하기로 했어. 다시 한 번 도전해볼게. 한동안 한국에 못 올거야. 아니,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막 도착한 열차에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올라탄다.)

Epilogue 1

은수는 승우의 아내로, 암호학의 대가인 PW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나 근무하고 있다. (은수가 신영이와 식당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로 만나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은수의 독백이 시작된다.

은수 : 불과 20년전 쯤엔 말이야. 도장 하나를 문서에 찍으면 우리를 증명할 수 있었어. 하지만 요새는 도장을 즐겨 쓰지 않아. 공인인증서라는 전자 도장을 쓰지. 이건 온라인 상에서 우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니까. 마치 과거의 도장처럼. 전자 도장이 있으면 집에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도 있지. IT는 우리 삶을 매우 편리하게 바꿔놨지.

그런데 우리는 IT가 제공하는 편리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을까? 맞아. 지불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해커라는 존재들에게 지불하고 있지. 아니, 정확하게는 지불당하고 있지. 억울하지 않아? 해커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들은 널리고 깔렸잖아.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그 외 보안 프로그램, 비밀번호 그리고 그것의 변경까지. 참 불편하긴 하지.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나잖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정보보안을 무시하고 외면하거든. 해커는 바로 우리들 같이 정보보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지.

물론 정보보안도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전자 도장이라 불리는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어. 손가락, 생체도장. 복제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고유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있지. 따라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정보보안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 우리의 핸드폰에 적용해볼까?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거나 패턴을 그리거나 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우린 이제 지문만 갖다대도 우리가 그것의 주인임이 증명되잖아.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 여러 방법들도 생겨났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린 안전해? (신영의 얼굴이 나오며) IT가 주는 편리함에 대한 비용. 이젠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할텐데. (승우의 얼굴도 나온다.)

Epilogue 2

2031년의 서울. 한 건물의 옥상. 피투성이가 된 성재와 흐느끼는 신영이 보인다.

성재 : 신영아, 내가 '어바웃 타임'(본 시나리오에서 유일하게 현실과 일치하는 영화 제목) 보면서 했던 말 기억해?

회상 장면이 시작된다. 집에서 같이 다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 신영과 성재

신영 : 한때는 기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당연히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꼭 잊어야만 할까?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걸 굳이 억지로 잊어야 하나 싶더라. 그 순간의 나도 나의 일부이고, 그때를 기억하는 게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시의 감정에 덮어뒀던 현재의 평가나 기분들이 지워지고 그때의 행복과 설렘이 다시 남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시간을 사랑하기도 하는 느낌도 들고. 그냥 가슴 속에 넣고 두고두고 꺼내 기억을 회상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더라. 물론 먹먹하고 애절한 감정은 평생 남겠지만, 살면서 그리운 추억 하나 정도는 간직하면서도 살아봐야지.

회상 장면에서 돌아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능력 있는 2031년의 은수가 보인다.

3. 시 사냥

교과서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강의나 교과서에서 설명된 개념을 일상어로, 함축적이고 통찰력 있게 표현한 시 구절이나 노래 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낸(사냥한...) 시 구절과 노래 가사를 쓰고, 그 밑에는 해당하는 교과목 내용을 한 단락씩 부연해놓았습니다. 시인들, 그리고 작사가들은 섬세한 개념이나 느낌을 아주 쉬운 일상의 단어들로 밀도 있게 표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수강했던 한 학기의 수업에서 배웠던 컴퓨터 과학의 개념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공부의 내용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맘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목차에 따라서 균형있게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도구' '400년의 축적 - 보편만능 기계의 탄생, 400년' '그 도구의 실현 - 다른 100년, 생각(부울의 연구), 스위치, 컴퓨터의 실현' '소프트웨어, 지혜로 짓는 세계 -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 푸는 솜씨(알고리즘과 복잡도), 담는 그릇(언어와 논리)' '그 도구의 응용 - 인간 지능의 확장, 인간 본능의 확장, 인간 현실의 확장' 등 모든 챕터에 대해서 다루었고, 개념도 그러하듯 다양한 장르의 노래 가사와 다양한 시인들의 시 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

'한 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
언제가 끝일지 모르는 지금이 Best Part'

DAY6(데이식스) - 'Best Part'

튜링이 컴퓨터의 설계도를 우연히 펼치기까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뭔지를 정의하고 싶어 했던 역사는 적어도 400년 정도로 펼쳐진다. 논리 추론이란 결국 몇 가지 방식의 생각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같음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그 생각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생각을 기계에게 시킬 수 있을 거라고 꿈꾼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400년의 의미가 무르익던 이 꿈이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 꿈을 부풀리는 성과가 동시에 존재했기에 컴퓨터의 설계도가 '우연찮게'라는 이름 아래 결국 드러난 것이다. 이 뒤에는 라이프니츠, 프레게, 러셀, 화이트헤드, 힐베르트, 괴델, 칸토어 등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혁신'의 '천재'가 단 번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향토에
가지들은 한날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멀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박성룡 - '과목'

위에서 살펴본 튜링기계를 실현하는 데에는 엔지니어들이 늘 사용하는 지혜, 바로 '속내용을 감추며 차곡차곡 쌓기(abstraction hierarchy)'가 동원된다. 맨 밑바닥 계층에서 부품을 만들어, 그 부품을 사용하는 법을 외부에 알린다. 그 부품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만 알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위 1단계에서는 0단계 부품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법에 따라 새로운, 더 큰 일을 하는 부품을 만든다. 0단계에서와 똑같이 1단계에서 만든 부품의 속 내용을 감추고 외부에는 그 부품이 하는 일과 사용하는 법만 알려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 만들어진 디지털 논리회로들이 부품이 되어 속 내용을 감추며 차곡차곡 쌓아 조립된 것이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지혜는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한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을 모를지언정, 훌륭한 서사를 풀어낼 자신만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요새 마음만큼 생각이 안 따라줘
의욕은 넘치는데 소재가 다 떨어졌네요
내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 줄 분 없나요'

- AKMU '소재'

무언가를 독창적으로 창작해놔야 하는 사람들은 다 느낄만한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수학 공식처럼 내가 명작을, 명곡을,

명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걸까?' 이런 고민을 컴퓨터과학을 다루는 그들도 똑같이 했다. 그게 바로 NP 클래스 문제이다.

- 1) 주어진 지도 위의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경로가 있을까? 아니면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지도의 도시들을 다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 2) 주어진 부울식(boolean formula)이 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 3) 주어진 자연수를 인수분해하는 다항 알고리즘은 없을까?
- 4) 1000만 관객을 넘기는 영화만을 만들 수는 없을까?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이러한 NP 문제들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정확히 답을 내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곤혹스럽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NP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다. 디지털 암호기술을 버티는 기둥이 이런 NP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운이 좋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민들로 얻어낸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것 아닐까.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였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나희덕 - '푸른 밤'

알고리즘을 만들 때 흔히 쓰는 문제 풀이 패턴이 있다. 알고리즘의 실전 기본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며, 모조리 훑기(exhaustive search), 되돌아가기(backtracking), 나눠풀어 합치기(divide-and-conquer), 기억하며 풀기(dynamic programming), 질러놓고 다듬기(iterative improvement) 등이 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에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등산로만 하더라도 여러 갈래가 있기에 자신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곤 한다. 빙빙 돌아서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난이도가 쉬운 길, 직선 주로라 체력은 많이 소요되지만 시간이 짧은 길.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우린 모두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 컴퓨터 과학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 학문을 사랑하는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이 가는 그 길

을 우리는 살펴보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나가면 된다.

'미지의 그 영역을 찾게 한 순간
문혔던 감각들을 깨워낸 듯한 그곳은
중력보다 강하게 또 아주 깊숙하게
헤어나지 못할 끝까지 끌어당겨 날'

샤이니 - 'Atlantis'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은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문제풀이법이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라는 전혀 새로운 컴퓨터가 현실로 닥쳐올 준비를 하고 있다. 조금 다른 세계의 알고리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실험실에선 실현되고 있는 미래다. 전기 스위치 대신에 원자 내부의 양자를 이용해서 튜링의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 양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하급수의 NP 문제가 다항시간에 풀릴 수 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나는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강소천 - '눈 내리는 밤'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양자 현상에는 겹쳐있기(superposition), 얽혀있기(entanglement), 그리고 확률진폭(probability amplitude)이 있다. 양자 세계에서는 하나의 양자가 여러 개의 상태를 겹쳐서 가지는 중첩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서로 짝을 이뤄 얽혀있을 수도 있으며, 하나의 확률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다른 확률진폭 역시 가능하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 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도중환 - '단풍 드는 날'

모든 기계학습에는 두 가지 허들이 있고, 이제 남은 우리의 과업은 이 허들을 넘는 기계 학습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이 현상을 넘지 못하고 유추하는 지식은 너무 오차가 커서 쓸모가 없어진다.

첫 번째 허들은 기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면에서 관찰하기로 하면할수록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기하급수로 - 비현실적으로 급속하게 - 늘어나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똑똑하게 기계 학습하는 것이 관건이다.

두 번째 허들은 학습과정이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이 오히려 진실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오히려 좋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입력에는 정답을 내더라도 미래에 만나게 될 생소한 입력에는 좋지 않은 출력을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은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현실적'인 계산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확히는, 어떤 샘플들로 배우든 간에,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늘 맞출 수 있어야 하고, 이때 샘플의 개수를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계산 비용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런 조건을 컴퓨터과학과 통계의 개념을 동원해서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레즐리 밸리언트가 1984년 발표한 얼추거의맛기 학습 모델이다. 마치 튜링이 '기계적인 계산'을 튜링 기계로 명확히 정의했던 것과 유사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계학습'이 뭔지를 정의한 것이다. 밸리언트의 성과는 의미심장하다. 인덕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갔

다. 밸리언트가 정의한 '기계학습'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인덕을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무지막지하게 좋아지면서도 값이 떨어지고 있는 컴퓨터 성능과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데이터, 이 쌍두마차가 기계 학습을 실용적인 기술로 만들고 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계속 단조로움 속 이전 변해야 할 때
격변하는 세상엔 때론 기적이 날 찾아와
매일 바라던 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샤이니 - 'Picasso(Korean ver.)'

우리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한 암호기술은 모두 현재의 컴퓨터 한계에 기대고 있다. 디지털 암호기술은 모두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 쉽게 풀 방도를 알 수 없는 계산 문제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그럴 리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고안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또, 이 벼랑에서 디지털 암호기술 역시 꽃필 수 있었다.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매혹되어 수백 년간 문제들에 매달렸고, 그런 문제를 풀면 당장 어디에 쓰일지는 안중에도 없이 무수한 땀을 흘렸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았다는 역사만 만든 그 '헛된' 시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아이유 - '아이와 나의 바다'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다 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백예린 - 'Antifreeze'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보자. '우연'의 탈을 쓴 '필연'으로, 서로 맞물려 부족했던 과거를 채우고, 새로운 컴퓨터과학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미래를 펼쳐나가자.

끝맺음 - 집필 소감

1. 가르침처럼 가혹한 가르쳐짐은 없다.

어렸을 때 전 누군가에게 제가 가진 무언가-지식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내 주변인들을 비롯한 그 어떤 이들에게 언젠가부터 말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역시도 아직 부족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변한다는 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주제넘게 영향을 끼칠까봐 무서웠다고 해야할까요?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꼭지를 써나가면서 내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 나간 것이 흥미롭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으니 이 글을 본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Are you ready for going on this journey with me?

2. 시나리오 작성

사실 소설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즐기는 사람인지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에는 고통보단 설렘이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본 책에서 메인 파트는 이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꽤나 분량도 길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파트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신영'은 50살의 여성입니다. 2046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 나이 많은 건 아니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살 정도로 설정했어요. 얼마 전 SNS를 돌아다니다 장난식으로 연인을 빌려달라는 요청의 글을 봐서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컴퓨터과학이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게 합쳐진 유머러스한 일상 SF를 담고 싶었습니다.

2장의 주인공은 사실 '신영'도 '펜'도 아닌 '재홍'입니다.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꿈을 향해 내달리는 자식의 앞길을 지켜봐야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잘한 정에 얽매이지 않는, 조금은 관조적인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뭔가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버지 특유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간절한 꿈을 향해 담대하고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게 해주는 '펜'의 신비한 힘을 업고라도 말이지요. 사실 컴퓨터의 설계도를 처음 고안해낸 튜링도, 논리 공식을 확립한 부울도, 대각선 논법을 사용한 칸토어도 자신이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100% 상상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신영이는 결국 성공적인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향해 달려나가는 신영이의 모습에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제가 서술한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대표적으로는 신영과 성재, 그 외 서현, 승우, 진영, 예원, 재홍 등)은 결코 저의 생각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품은 감정과 관념은 일단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냉철한 계산 아래 지어진 공간은 오로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소일 뿐이니깐요. 그렇게 저와 작품 사이에 생겨난 빈 공간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초대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에게 읽히고 나면, 부디 여러분들이 뭔가 꼭 붙잡고 의지할 만한 환한 불빛이 마음속에 켜진 것처럼 기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재미있게 살아보자.'라는.

P.S. 사실 Epilogue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 담지 못했어요. '2046년의 승우가 내뱉은 저 의미심장

한 말은 뭘지', '2031년의 성재는 왜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왜 단 순히 등장한 지하철 직원이 '예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지', '승우는 왜 신영이와 한 달 내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만난 건지' 꾸미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집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끝마치지 못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마무리짓고 싶네요. 더 깊이 있는 컴퓨터과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말이죠. 수업이 종강하더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어요.

3. 시 사냥

정말 작업하면서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줬던 챕터예요. 다양한 가수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듣고 그 가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문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갈래 중 하나인 시를 활용해서 한 학기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나간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결국 한 학기 동안 달려왔던 이 프로젝트가 끝난 게 후련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네요. 저와 함께했던 조원분들이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 저와 함께하지 못하여 즐겁게 토의하고 공동저작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이 과정이야에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머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다른 수업에서 학우분들을 만나게 되면 즐겁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조교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내 모습 기억이 날까요
별을 찾는 아이 같다 말했죠
남들과 다른 내 모습 이해해줘서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어디 있나요 보고 싶은
내 마음과 같은가요
별이 된거죠 내 맘 속에
영원히 숨쉬고 있죠
예전처럼 내 곁에서 볼 수 없어도
힘들어 할 땐 나도 알 수 있어
그럴 때 내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신비한 힘을 전할게요
어디있나요 보고 싶은
내 마음과 같은가요
별이 된거죠 내 맘 속에
넌 살아있는 꿈이죠
함께 걸었던 거리 주고받던 얘기
서성거리게 되면 벅차 올라요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먼 곳에 있다 하여도
널 바라보고 있어
어디있나요
보고싶은 내 마음과 같은가요
별이 된 거죠 내 맘 속에
넌 살아있는 꿈이죠
살아있는 꿈이죠'

- 아이유, '별을 찾는 아이'